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한상효

## 국문 초록

지금까지 한국에서 투표를 설명하는 핵심기제는 지역주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역균열이 점차 쇠퇴하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투표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급균열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계급균열에 따라 구획된 유권자들이 자신의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계급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급이 선거 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계급과 투표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아직까지 계급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 수준의 분석단위에서 구성된 계급구조를 독립변수로, 투표에서 후보선택을 종속변수로 삼아 단순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변량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단선적인 분석에 집중해왔다. 이런 분석은 계급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지역사회는 계급 재생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계급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급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다르다면, 투표에 미치는 계급의 효과 역시 지역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급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평등이 개인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간,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목적은 한국에서 계급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위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한 계급형성 지역사회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조건은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

준과 불평등 수준, 그리고 두 요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이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라는 계급적 성격을 가진 의제가 최초로 부각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는 개인수준의 자료인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집합수준의 자료인 시군구별 빈곤율, 부동산 가격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석단위를 가진 다층자료를 활용하는만큼, 군집효과를 처리하기 위해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계급별 투표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하여 보수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지역사회 내부의 불평등 역시 계급별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부의 경제력 격차가 커질수록 다른 계급에 비해 자본계급의 보수정당에 지지가 높아졌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과 불평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경우, 경제력 수준이 상승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일수록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에 비해 보수정당 지지율이 감소한 반면, 불평등의 변화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경제력 수준이 낮거나 하락해온 지역일수록 노동계급의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본계급의 계급투표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계급의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다는 서구의 연구들과는 구분되는 한국적 맥락에 해당한다.

주요어: 계급, 계급투표, 지역사회, 다층분석, 노동계급, 제5회 지방선거, 불평등

학 번: 2015-20200

# 목 차

I. 서론 .....	1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6
1. 계급투표 연구의 흐름과 방향 .....	6
2. 국내 계급투표 연구의 형성과 전개 .....	10
3. 지역사회, 계급형성, 그리고 계급투표 .....	14
4. 연구가설 .....	24
III. 연구방법 .....	25
1. 연구자료 .....	25
2. 변수정의 .....	27
3. 분석모형 .....	39
IV.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따른 계급별 투표선택의 변화 .....	43
1. 지역, 통제변수 그리고 계급의 효과 .....	43
2. 계급별 투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 .....	49
V. 결론 .....	59
참고문헌 .....	62
부록 .....	73
Abstract .....	84

## 표 목차

<표 1> 계급경계 변량분석 .....	31
<표 2> 사용변수 기술통계 .....	37
<표 3> 무조건 모형(지역효과의 크기) .....	44
<표 4> 통제변수 모형 .....	46
<표 5>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	48
<표 6>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	50
<표 7>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	53
<표 8>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	55
<표 9> 지역사회별 경제력 및 불평등의 변화가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	58

## 그림 목차

<그림 1> 계급과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	47
<그림 2> 지역사회 빈곤율과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	51
<그림 3> 지역사회 아파트 평균가격과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	52
<그림 4> 지역사회 불평등 수준과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	55
<그림 5> 지역사회의 경제력과 불평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	57

# I. 서론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균열구조는 지역이었다(이갑윤, 2002; 온만금, 2003). 지역균열의 기제가 지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인지, 지역감정과 지역정체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현상인지, 아니면 정치집단의 논리에 따른 편향적 동원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신광영, 1993; 강원택, 2000; 조기숙, 2000; 박상훈, 2009; 최장집, 2010). 다만 연구자들 간의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열에 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들의 투표를 결정하는 제1변수는 지역주의였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민주화 이전이든 이후이든, 분석단위가 개인적 수준이든 집합적 수준이든,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지역이다(윤광일, 2013)” 라는 ‘지역주의 투표론’은 학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및 언론에도 널리 수용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주의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세대균열(강원택, 2010; 박찬욱, 2013; 성경룡, 2015), 진보와 보수 간의 보혁갈등(강원택, 2003; 이우진 & 이원석, 2012, 오현주 & 길정아, 2013), 상층과 하층 간의 계층대립(박찬욱, 2000; 이종래, 2003; 손낙구, 2010; 강원택, 2013; 이용마, 2013; 2015), 사회연결망 및 동원(김석호, 박바름 & 하현주, 2013; 김석호 & 한수진, 2015)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선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역이 여전히 유효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제 지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다.

본 연구가 지역균열 이후 한국에서의 투표를 설명할 요인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계급이다. 립셋과 로칸(Lipset & Rokkan, 1967)의 연구 이후 계급균열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이해되어왔다. 그렇지만 서구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계급은 선거연구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시기에는 제도정치 내에 계급정당이 불가능했으며,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지배적이었던 지역균열에 밀려 계급이 주요 균열로 부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계급은 언제나라도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계급을 본 연구의 중점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소득이 최상위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이탈자 중 다수가 하강이동하는 소위 중산층 붕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신광영, 2004, 2013; 남준우, 2007; 구해근, 2012, 김낙년, 2012). 나아가 중산층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하위계층으로 서민계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연구도 등장하였다(남찬섭, 감수정, 송유진, 장세훈 & 최영준, 2013; 장세훈, 2016).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중산층 위기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90년대 말, 200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경제성장률마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sup> 양극화 심화와 경제성장률 악화가 결부된 결과, 불평등이 세대, 직종, 지역을 막론하고 일반화되고 있다. 둘째, 계급의제가 한국 제도정치에서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계급의제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의회로 진입했으며, 주요선거에서 계급의제의 성격을 갖는 이슈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분석할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상급식이라는 분배와 관련된 보편적 복지 논의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첫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2012년 대선의 경제민주화, 2017년 대선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본소득 역시 대표적인 계급의제이다. 셋째, 지역균열을 대체한다고

1) 200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은 2000년 8.9%, 2001년 4.5%, 2002년 7.4%였으나, 최근 3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로 하락하였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01](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01)



알려진 세대균열과 세대담론<sup>2)</sup>의 이면에는 계급이 존재한다. 신광영(2009)이 보여주었듯이 한국에서 불평등은 세대 내 격차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 내 문제라는 것은 곧 계급문제임을 의미한다.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인 12.4%의 4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청년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OECD, 2015).

한국에서의 선거 있어서 상수였던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계급적 성격을 가진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계급을 주요한 변수로 삼는 선거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한국에서 계급이 투표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연구자들 간의 논쟁 역시 계급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정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계급투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계급배반투표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두고 이루어져왔다(정영태, 1993; 박찬욱, 2013; 손낙구, 2010; 한귀영 2013; 전병유 & 신진욱, 2014).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계급의 영향의 존재여부와 그 방향성,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투표에 대한 계급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원인의 중심에 계급에 대한 구조주의적 편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구해근(2002, 2007)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계급연구는 구조주의적 접근에 집중해왔다. 계급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생산관계를 기준으로 파악된 계급구조상에서의 위치가 그 위치의 담지자들에게 동일한 이해, 가치관, 행위를 갖게 만드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러다보니 계급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왔다. 이 점은 계급투표를 다룬 연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단위에서 계급구조를 구성한 후, 계급구조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투표하는 정당이 결

---

2) 우석훈과 박권일(2007)이 청년세대를 '88만원 세대'로 호명한 것이 호응을 얻은 이후부터, 다양한 청년담론들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이 담론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을 청년세대 고유의 문제로 설명하면서,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주체화를 요구했다.

정되는지를 확인하는 단선적 분석이 주를 이뤄왔다. 오랜 계급정치의 역사를 가진 서구와 다르게 계급투표가 출현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정도로 계급정치가 안정화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한국에서는 계급구조상의 위치와 투표선택 간에 관계가 이제 막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과 함께 계급형성과정의 관점을 분석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계급형성과정이란 계급을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형성중인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톰슨(Thompson, 1968)에 따르면 계급은 구조보다는 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선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경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계급의 구성원들일지라도 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겪은 경험에 따라 계급적 주체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계급과 투표의 관계에 있어 계급형성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시군구 수준에서의 지역사회에 주목할 것이다. 계급은 생산현장인 작업장만큼이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Castells, 1977; Soja, 1989; Harvey, 1989; 2003; , 2000; 조명래, 1993; 조돈문, 2006; 김왕배, 2011; 송호근 & 유형근, 2009; 2010). 지역사회는 계급형성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계급형성과정의 주요 인자이다(Savage, 1993).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계급 지역의 경제적 조건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다. 이는 계급균열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단지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서민철, 2006; 김영정, 2009; 박완규, 2010). 지역 간 경제적 조건 차이가 커질수록 어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공간적 경험이 달라지며, 이는 서로 다른 계급형성과정으로 이어진다(김왕배, 2011). 따라서 계급구조 상에서 동일한 위치를 점하는 개인일지라도, 실제 그들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지역의 경제적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면 전혀 다른 투표양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급 투표를 다룬 연구들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서 분석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계급효과의 지역 간 차이를 사상시켜왔다. 본 연구는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효과가 유권자의 계급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에서 계급투표를 다룬 연구들을 검토한 후, 그 의미와 한계를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급형성 관점과 지역사회 중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급형성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피고 지역의 경제적 조건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기제가 검토될 것이다. 그런 후,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와 시군구 수준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과 불평등 수준, 그리고 두 요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다층모형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계급투표 연구의 흐름과 방향

계급과 투표의 관계는 립셋과 로칸(Lipset & Rokkan, 1967)의 균열구조 연구에서 선구적으로 다루어졌다.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서구의 정당체제의 성립에는 국민혁명과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네 가지 균열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혁명은 중앙 대 지방, 정부 대 종교의 균열을 낳았으며, 산업혁명은 공업 대 농업, 노동자 대 부르주아의 균열을 낳았다. 네 가지 균열 중 정당체제를 이루는 핵심 균열은 노동자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균열이며, 다른 균열들은 계급균열이 정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개입하여 국가별 정당체제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서구의 정당체제는 근본적으로 계급정당체제이다. 전위당 형태였던 노동자 정당이 19세기 말부터 의회에 진입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을 동원하는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였다. 부르주아 정당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명사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계급 균열을 토대로 노동자 정당 대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정당체제의 기본틀이 형성되었으며, 이 정당체제가 동결(freezing)되어 서구 정당구조의 기본틀이 되었다.

서구에서는 계급투표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알포드(Alford, 1962; 1963)는 1936년에서 1960년까지 미국의 선거를 분석하여 유럽은 물론, 계급에 기초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계급투표가 존재함을 밝혔다. 립셋(Lipset, 1964) 역시 영국에서 중간계급은 보수당, 노동계급은 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중간계급은 공화당, 노동계급은 민주당에 투표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쉐보르스키(Przeworski, 1985)는 계급균열 자체보다는 계급균열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급정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코르피(Korpi, 1978) 역시 스웨덴 노동계급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블루칼라뿐만이 아니라, 화이트칼라를 노조를 통해 노동계급의 일원으로 조직해냄으로써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민주화된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계급균열에 따라 나누어진 유권자들이 자신의 계급위치에 따라 투표한다는 тезе가 연구자들 사이에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Evans, 1993).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사회에서 계급정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이 이어지자 사회적으로 계급균열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부유해지고, 대중문화에 침윤되면서 좌파정당에게 투표하도록 이끄는 매개요인인 계급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계급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Marcuse, 1968; Parkin, 1967; Laclau & Mouffe, 1985). 68혁명 이후 신좌파이론가들은 보수화된 노동계급 대신 신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간계급 중심의 신사회운동이 기존의 계급운동을 대체해 더 이상 경제갈등에 기초한 전통적인 좌우 대립으로 사회를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Offe, 1985).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77; Inglehart & Welzel; 2005)의 경우, 사회의 핵심가치가 탈물질적 가치로 이동하면서 이제 대립은 물질적 가치 대 탈물질적 가치 사이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정치내에서도 계급균열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샴미르(Shamir, 1984)로 부터 나왔다. 샴미르는 19세기 중반에서 1970년대까지 서구 19개국<sup>3)</sup>의 정당체제를 분석하여 서구의 정당체제는 동결이 진행중인 것도, 동결되어 있다가 해빙되기 시작한 것도 아니라, 애초에 동결된 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급적 토대 위에서 이념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원을 동원하는 선거전략이 점차 한계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정당들이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 이행

---

3) 정확히는 서구 17개국에 이스라엘과 일본을 추가하여 19개 국가다.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Przeworski, 1985 ; Mair, 1990). 정당의 계급적 색채가 탈각되자, 유권자들의 정당 정체성 역시 퇴색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에 지속적으로 충성을 바치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선거에서 정당을 쇼핑하듯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파쿨스키와 워터스(Pakulski & Waters, 1996)에서 정점에 달했다. 두 사람은 계급이 선진사회에서 더 이상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계급죽음논쟁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계급균열의 주창자인 립셋(Clark & Lipset, 2001) 역시 계급정치가 끝났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급균열이 소멸하고 계급투표가 쇠퇴했다는 주장에 모든 연구자가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동결테제가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한 마이어(Mair, 1990)에 따르면 큰 틀에서 계급균열을 기반으로 한 정당체제는 서구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존 정당의 성격 변화,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 등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정당들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 정당들에 대한 계급별 지지 역시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앤더슨과 히스(Andersen & Heath, 2002)는 1964년에서 1997년까지 영국에서의 선거를 분석하여 개인의 계급위치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지만, 지역의 계급구성비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함을 밝혔다. 에반스(Evans, 2000)는 계급투표의 쇠퇴를 강조했던 연구들의 방법론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계급투표는 선진 민주주의 산업국가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뉴비르타(Nieuwebeerta, 1996) 그리고 뉴비르타와 울티(Nieuwebeerta & Ultee, 1999)의 분석에 따르면 계급투표의 지속 여부는 국가별로 달라졌다. 북유럽과 영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계급투표가 유지되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계급투표는 미약한 수준이었

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1992년까지 미국의 선거를 분석한 호우트, 브룩스, 만자(Hout, Brooks & Manza, 1995; Manza, Hout & Brooks, 1995)는 여전히 미국에서도 계급투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의 계급투표 논문들을 종합한 결과, 계급투표가 쇠퇴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돈문(2009) 역시 비서구국가인 2002년과 2006년에 있었던 브라질의 선거를 분석하여 오히려 브라질에서는 계급투표가 심화되었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계급투표가 쇠퇴했는지 여부는 분석이 더 필요한 논쟁 중인 사안임을 알 수 있다.

## 2. 국내 계급투표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의 선거 연구에 있어서 계급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변수였다. 해방이후 한국 선거에서의 균열은 ‘여촌야도’로 대표되던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열로 이해되었으며, 1987년 이후에는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열이 한국의 대표적 균열로 인식되어왔다(김육, 2011). 그러나 2002년 16대 대선 이후, 지역균열의 영향력 감소, 양극화 심화 중산층 위기론 확산이 겹치며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박찬욱, 김경미, 이승민(2008)과 강원택(2003, 2013), 서복경(2013)에 따르면, 서구와 다르게 한국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있어서 계층 혹은 계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하위계급 유권자가 오히려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강원택(2013)은 이것을 계급배반투표로 정의하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세대와 계층의 혼합 때문이다. 저소득층 유권자의 다수가 고령층 유권자였으며, 이들의 보수성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계급배반투표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한귀영(2013) 역시 50대 이상에서 빈곤보수의 경향이 등장한다고 분석하며, 계급배반투표의 원인을 세대로부터 찾고 있다. 전병유와 신진욱(2014) 역시 저소득층이 2002년 이후 점점 더 보수정당에 투표했으며, 이를 노령층의 보수화로 인한 효과로 보고 있다.

최장집(2010, 2011, 2012)은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계급배반투표를 한국 정당정치고유의 보수성으로 설명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제도정치에서 정당은 여전히 미약하였고, 시민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지 못하고, 단지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당면 목표에 따라 합당, 해산, 창당을 반복하였고, 그에 따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역시 빈번했다. 또한 13대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후진적인 정당 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어진 정치적 기



회구조에 비해 정당들의 이념적 분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1950년대부터 내려온 좌파배제-우파독점의 구도가 지속되었으며,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하층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정치세력이 제도정치 내에 자리잡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보정당은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들의 정당이 되었으며, 하층계급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계급배반투표를 하는 양자택일에 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계급은 주로 계급배반투표와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 붕괴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계급정치가 부상할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인식 역시 존재한다(구해근, 2012). 이재열(2014)도 심화되고 있는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지적하며, 이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세대가 하층계급이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결정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선거 연구에서도 점차 계급투표의 가능성을 살피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과 창원 그리고 강남 같은 특정 계급이 밀집된 지역에서 계급투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한상진, 1998; 박찬욱, 2000; 조효래, 2001). 손낙구(2010)는 수도권에서 동별 주택소유비율과 대졸자 비율,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높음을 밝혔다. 고원(2012, 2013)은 계급배반투표를 했던 5060세대와는 다르게 2030세대에서는 계급투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 의제가 등장한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한국 정치의 균열구조가 계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승진(2013)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 계층의식과 투표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객관적 계층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찾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의 선거에서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이견이 존재한다. 계급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이며, 영향을 미친다면 계급투표 형태로 나타나는지 계

급배반투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방향성 역시 논란거리이고, 특정한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란만 지속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한계를 갖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첫째, 계급에 대한 엄밀한 조작적 정의가 부재하다. 주로 정치학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수준, 직업지위, 자산의 양에 따라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단계적 관점에서 계급을 조작화 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조작화는 적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분류기준이 연구자들마다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계급과 투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축적되고 있으나, 연구들 간 상호비교에 난점이 발생한다.

둘째, 계급에 대한 구조주의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계급을 독립변수로, 투표를 종속변수로 놓고 단순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단선적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계급구조에서의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구조와 행위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사회학에서의 오래된 합의와 배치되는 것이다(Bourdieu & Wacquant, 2016). 또한 한국에서도 계급투표가 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급정치가 일반화되지 않은 이상, 계급형성의 수준에 따라 계급투표가 나타나는 지역, 나타나지 않는 지역, 심지어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전국 단위의 서베이 자료를 기준으로 계급의 효과가 전국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지역별 격차를 사상시켜 왔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급투표가 일반화된 서구에서처럼 계급범주와 투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다보니 계급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셋째,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에 있어 동일하게 계급을 독립변수로, 투표를 종속변수로 놓고 변량분석(ANOVA)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유권자가 투표하는 지역의 특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지역균열이 한국의 대표적 균열인 만큼, 선행연구들도 분석에서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해왔다. 그러나 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계급투표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거 연구들은 지역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지역변수로 전국을 세 집단(영남/호남/기타)에서 다섯 집단(수도권/영남/호남/충청/제주·강원)으로 나누어 가변수 처리해 광역 시도 수준에서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이런 경우 광역시도보다 분석단위가 낮은 시군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둘째, 분석과정에서 지역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 간의 분석단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모형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분석단위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군집효과(cluster effect)를 처리하지 못해 분석결과에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sup>4)</sup>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마다 선거구가 따로 형성되며 그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이 더 큰 문제가 된다(김석호 & 한수진, 2014). 결국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급투표의 수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시도를 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토대에 근거한 계급의 조작화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계급에 대한 구조주의적 편향에서 벗어나, 계급형성의 관점을 수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급과 투표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지역의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할 것이다. 셋째, 개인수준과 시군구 수준으로 자료를 복합적으로 구축한 뒤, 지역별 조건이 미치는 미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

4)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할 것.

### 3. 지역사회, 계급형성, 그리고 계급투표

#### 1) 지역사회와 계급형성

계급형성과정에서 지역은 시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Harvey 1989, 2006; Soja, 1989; Savage, 1993; 송호근 & 유형근, 2009).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적 계급이해(Althusser, 1969; 2006; Althusser & Balibar, 1997)에 대응해 구조가 아닌 형성과정으로서의 계급을 중시한 톰슨(Thompson, 1968)이 선차적으로 강조한 것 역시 계급의 역사성이다. 톰슨이 알튀세르에 반대하기 위해 내세운 문구인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만든다”는 구조에 반대편에 지역보다는 시간을 위치시키는 입장을 보여준다. 소자(Soja, 1989: 27)는 이러한 관점을 사회학과 계급론 고유의 역사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역사주의가 사회생활과 사회이론을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맥락화함으로써 지리적 혹은 공간적 상상력을 능동적으로 덮어버리고 주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에 비해 지역이 계급형성과정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계급형성과정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인 구해근(2007)이 최근의 계급연구를 일별하면서, 생산관계에 따른 계급위치를 중요시하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며 그 반대 태제로서 강조한 것 역시 톰슨으로부터 기원하는 역사주의적 관점이다.

송호근과 유형근(2009)은 울산 북구와 동구라는 노동계급의 거주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동안의 한국의 계급연구가 가진 지역에 상대적인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특히 공간 중에서도 생산의 장소인 작업장보다 지역사회를 강조하였는데, 지역사회야 말로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쓰리프트와 윌리엄스(Thrift & Williams, 2014) 밝혔듯이 지역의 특성은 계급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계급 거주지역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엥겔스(Engels, 1993)가

보여주었듯이 계급은 시간에 따라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공간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나 계급연구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은 구조주의와 역사주의에 밀려 장시간 휴면상태에 접어들었다가, 1970년대 공간정치경제학 혹은 사회지리학의 발전하면서 부활하였다(조명래, 1993; Soja, 1989; 송호근 & 유형근, 2009). 공간정치경제학의 주요한 시발점 중 한 명인 만델(Mandel, 1963)은 계급과 지역의 관계를 다룬 자신의 선구적인 논문에서 벨기에의 두 지역인 플랑드르(Flanders)와 왈로니아(Wallonia)의 불균등발전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이가 어떻게 두 지역에서 노동계급의 성격 차이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세비지(Savage, 1993)는 계급과 지역을 다룬 연구들을 일별하면서 계급구조가 계급행위로 이어지는 배경으로서 지역을 다루는 사례연구 패러다임(case study paradigm)과 지역을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계급형성의 주요 인자로서 다루는 계급형성 패러다임(class formation paradigm)으로 나누어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자본축적의 진전 수준, 평균적인 경제력, 경제력의 변동, 생태적 환경, 공간 분업에 따른 불균등발전, 노동계급의 집중과 노조의 역량, 이웃연결망의 발전수준, 지역 내부의 불평등, 부동산, 도시 이데올로기, 지역 산업의 발전과 쇠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계급형성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Przeworski & Soares, 1971; Miller, 1978; Katznelson, 1981; 1986 ; Gould, 1991; 1993; 김석준, 1993; 2009; 정헌주, 2004; 신광영, 2004; 김왕배, 2011; Thrift & Williams, 2014).

## 2) 지역사회와 계급별 투표

한국 사회에서 지역문제는 경부 대 비경부 축 간의 불균등발전에 따른 영호남 간의 지역균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최장집(2010)은 지역 문제의 본질은 ‘호남 문제’이며, 유신체제에서 시작된 호남에 대한

배제에 기원한다고 주장했으며, 강원택(2011) 역시 립셋과 로칸의 균열 구조 연구를 한국에 적용하여 박정희 통치 당시의 불균등발전 정책으로 인한 영호남 간의 경제력 격차가 지역균열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조명래(1992)에 따르면 영호남 간 격차는 대자본, 숙련노동자, 도시자영업자 중심의 영남과 소자본, 임시노동자, 농업생산자 중심의 호남이라는 계급구조에서의 차이이며, 이는 ‘가진 사람의 지역’인 영남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지역’인 호남이라는 지역의 계급화로 이어져, 두 지역에서 전혀 다른 계급적 실천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계급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더 이상 영남 대 호남 수준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지역문제는 더 이상 정부 대 비정부 축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에의 불평등은 정부 대 비정부 축을 넘어 서울 대 비서울, 강남 대 강북의 격차로 점차 사회의 미시적 수준까지 세분화되고 있다(서민철, 2006; 김영정, 2009; 박완규, 2010). 특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계급 간 공간적 분리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심화되고 있다(신광영, 2004). 김창석(2006)과 송기욱, 김창석, 남진(2010) 역시 파워엘리트들의 주거가 일부지역에 계속 편중됨으로써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할 때,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효과는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로 불리며, 합의적 환경효과(consensual environmental effect)로 설명된다. 합의적 환경효과란 사회의 지배적인 특성에 지역주민들이 동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의 경우 지역의 계급적 성격에 따라 역으로 보수정당에게 투표하게 되지만, 경제적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은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화될 경우 합의적 환경효과로 볼 수 있다(Miller, 1978; MacAllister, I., Johnston, R. J., Pattie, C. J., Tunstall, H., Dorling, D. F.,

& Rossiter, D. J., 2001)

스티븐스(Stephens, 1981)는 퍼트남(Putnam, 1966)이 제시한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제를 이용하여 계급에 따른 합의적 환경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했다. 첫번째가 정당의 활동이다. 지역사회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그 지역에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적극적인 정당 활동은 다시 그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그 정당의 우위로 이어진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은 중간계급 지역사회에서는 보수정당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노동계급 지역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수 계급들의 선택은 강화되고 소수 계급들은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적 특성에 동조하여 투표하게 된다. 두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지역 주민들은 투표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타인들과 의사소통과정을 거친다. 지역사회에 보수적인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면 지역주민들은 그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만큼 보수적인 정치적 지향을 습득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계급이 지역사회 상호작용의 중심이 된다면, 다른 계급들도 상호작용을 통해 그 정당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지역사회의 규범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중간계급 중심의 규범이 형성되며, 낮은 지역에서는 노동계급 중심의 지역규범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 규범은 지역 사회의 다수계급에게는 기존의 선택을 강화시키고, 소수계급에게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의 주류계급의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세 가지 기제가 전제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며,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정을 거쳐 투표에 이른다는 것이다(Miller, 1978; Huckfeldt, Sprague & Levine, 2000). 이는 한국에서도 상호작용의 일종인 동원이 유권자의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김석호와 박바름, 하헌주(2012), 김석

호와 한수진(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쉘보르스키와 소아레스(Przeworski & Soares, 1971)는 노동계급에게는 합의적 환경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중간계급에게는 반작용 효과(reactive effect)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작용 효과란 합의적 환경효과와는 반대로,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적 특성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여 오히려 역으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부유한 중간계급 지역에 비해 빈곤한 노동계급 지역에서 노동계급은 진보정당에 더 투표하겠지만 중간계급은 진보정당에 더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정당에 더 투표한다. 쉘보르스키와 소아레스는 마르크스의 고전적 논의에 따라 빈곤한 지역일수록 노동자들이 집적되어 노동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노동자 조직이 형성하면서 노동계급문화가 형성되면서 노동계급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에 빈곤한 지역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발전할수록 중간계급은 노동계급과의 접촉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중간계급 고유의 계급의식을 발전시켜 보수정당에 더욱 투표하게 만든다. 앤더슨과 헤스(Anderson & Heath, 2002) 역시 노동계급 공동체가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밀도 높은 연결망으로 구성되는 반면 중간계급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 노동계급과는 다르게 합의적 환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맥락효과가 발생하는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특정 계급이 지역사회의 다수를 이루게 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은 특정한 계급문화와 규범을 형성시킨다. 이 계급문화와 규범은 다수계급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재생산해낸다. 반면 소수 계급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수 계급과 관계가 소통과 상호 교류인지, 혹은 배제와 적대인지에 따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가 결정된다.

---

5) 쉘보르스키와 소아레스(Przeworski & Soares, 1971)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정확히 '반작용 효과(reactive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용어는 밀러(Miller, 1978)가 계급과 맥락효과와의 관계를 정리한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적용하면 한국에서도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에 더 투표하고 경제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에 덜 투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논의를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한국사회의 맥락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계급정치가 일반화되었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지역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노동계급문화가, 중간계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중간계급문화가 존재한다. 즉, 계급의 지역화와 지역의 계급화(Urry, 1981), 공동체의 계급화와 계급의 공동체화(Harvey, 2003)가 선행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지리적으로 구획화된 계급문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확산은 계급에 따른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리는 차별과 배제라는 구체적인 공간경험을 통해 계급 간 구별짓기로 나타나고 있다(신광영, 2004; 조은진, 2007, 김교성, 2010; 김왕배, 2011).

특히 중산층 거주지들에서 강남을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 중간계급 문화가 출현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적들이 존재한다. 박배균과 장진범(2016)에 따르면 강남을 공간적으로 복제하는 ‘강남 따라하기’라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이 한국의 중산층들에게 보편화됨으로써 도시의 중산층 거주지들이 점차 강남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강남이란 교육과 서비스활동에서 비강남 지역과 위계적 차이를 갖는 지역으로 자산기반 도시 중산층을 호명(interpellate)하며 그들의 장소/계급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다(박배균, 장진범, 2016).

박철수(2013)는 1970년대 강남 개발이후 일반화된 한국 중산층 특유의 거주형태인 아파트 대단지를 분석하면서, 이들 대단지가 점차 외부세계와 물리적으로 단절되고 그 내부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빗장도시(gated community)화 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박인석(2013)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주목

을 받았던 지역시민운동인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2000년대 중반부터 활력을 잃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주거 단위의 소규모 도시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킬 새로운 운동으로 평가받았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태생부터 도시시민 전체가 아닌 중산층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주형태였다는 점, 그리고 대단지화 되면서 점차 외부로부터 폐쇄된 그들만의 주거문화로 발전한 점이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넘지 못한 한계로 지목되었다.

김수정과 최섯별(2012)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의 시각에서 특권계급의 상징공간인 강남과 비특권계급의 상징공간인 강북의 문화강좌를 분석하여 두 지역 사이에 격차가 단지 경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관계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섯별(2003)은 강남과 강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남이 ‘부유하다’, ‘고급스럽다’라는 형용사와 관계를 맺는 반면 강북은 ‘서민적이다’, ‘촌스럽다’, ‘납았다’ 등의 형용사로 수식된다고 분석하였다. 강남과 강북의 경제력 격차가 상반되는 상징적 의미로 재생산되어 계급공간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지환(2005)은 분당이 어떻게 중산층 거주지역으로서 생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당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강남문화권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대단지사건을 통해 ‘철거민 도시’, ‘영세민 거주지’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성남시와는 구별짓기를 시도함으로써 중산층으로서의 공간화된 계급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분당주민들의 기피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선기(2015)는 대전의 생활권별 지역주민들의 가치지향, 문화향유, 계층의식들을 분석하여 대전에서도 경제적 가치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 획득을 위한 구별짓기가 행해지는 중산층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에서도 강남과 강북을 전범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형태의 폐쇄적 중간계급의 거주지역은 경제력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별짓기 과정을 통해 상징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계급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에서도 중간계급 문화와 대비되는 독자적인 계급문화가 존재하는가? 울산에서 노동계급의 지역공동체를 분석한 김준(2005)에 따르면 1972년에 울산지역에 조선소가 세워지면서 대규모 노동자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 집단 거주지는 이후 1987년 노조민주화투쟁부터 1990년 폴리앗투쟁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반이 되는 주거공동체이자, ‘해방공동체’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노동자 주거공동체는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송호근과 유형근(2009) 역시 울산의 동구와 북구에서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를 바탕으로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이 발전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작업장과 지역사회의 정치적 분리가 심화되며 노동계급의 거주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종래(2003)는 울산지역의 2006년 지방선거 과정을 분석하면서 노동계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었으며, 조합원 가족들이 보수정당이테올로기에 포섭되거나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노동계급 지역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까닭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선거 캠페인에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침묵으로 외면했다. 조효래(2001)는 울산과 창원의 지역노동운동을 비교하면서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지역시민사회와 밀접한 연대를 맺어온 창원에서도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창립부터 지역전략이 부재했으며, 대규모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전히 현장과 지역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김영수, 2013).

민주노총(2003)의 ‘노동자 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가정과 개인에 대한 관심이 노조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고 있으며, 여가문화에서도 노동자 문화패보다는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으며, 참여욕구도 낮은 편이다. 황익주(1997) 역시 기훈 남성 생산직 사례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들이

골드소프와 로크우드가 제시한 ‘풍요로운 노동자’와 유사하며 노동자들의 개인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 전통이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양대 노동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창원에서조차 노동계급 문화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짧은 융성기를 거친 이후 쇠퇴하고 있으며, 조직 노동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결국 노동자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적 분화가 노동계급 문화를 잠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사회인 울산 내에서도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정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곧 계급 정체성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생활세계에서는 중간계급의 문화적 정체성을, 작업장에서는 블루칼라의 정체성을 보유함으로써 계급적 정체적이 유지하고 있어 다중적 계급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자신들을 대표할만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정치적 냉소나 보수주의로 호를 위협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한국적 상황을 정리하면 중간계급 문화와 공동체는 강남을 전범으로 부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형성되는 중인 반면(강내희, 2004; 박배균 & 장진범, 2016), 대중문화와 구분되는 노동계급 문화와 공동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박해광, 2008).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중간계급 문화와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노동계급에게는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반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노동계급에게 합의적 환경효과를 만들어낼 노동계급 공동체와 문화가 부재함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할 것이다.

경제력 격차의 심화와 불평등은 지역 간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지역과 빈곤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경제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지역 사회 내부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역시 커지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지역일지라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과 불평등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홍두승과 구해근(2001)에 따르면 불평등

은 계급구조를 양극화 시키고 이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변화시킨다. 마르크스와 엥겔스(Marx & Engels, 1967; Marx; 2008) 역시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에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발발하지만, 노동계급의 물질조건이 개선되어 불평등이 감소하면 노동자의 계급 의식이 쇠퇴한다고 보았다. 반면 조돈문(2006)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경제적 생활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하는 불평등 경험, 즉 상대적인 불평등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계급간 불평등이 사회 전면으로 드러나며, 타계급에 대한 특권층의 사회적 배제가 커질수록 박탈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 계급투표의 가능성이 제기된 원인 중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곧 계급투표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 4. 연구가설

가설 1. 계급에 따라 투표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1-1.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하여 보수정당에 더 투표할 것이다.

가설 1-2.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하여 보수정당에 덜 투표할 것이다.

가설 2. 계급별 투표는 지역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역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계급의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는 다른 계급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계급별 투표는 지역별 경제적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상승한 지역일수록 노동계급의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는 다른 계급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계급별 투표는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노동계급의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는 다른 계급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5. 계급별 투표는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지역일수록 노동계급의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는 다른 계급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개인수준에서 수집된 자료와 지역수준에서 수집된 자료가 결합되어 있다. 개인수준자료는 2010년에 실시한 제8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자료다. KGSS는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지역확률표집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한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원 기입방식의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27일에서 8월 31일까지였으며, 응답자는 총 1,576명, 응답률은 63%다.

지역수준자료의 분석단위는 시군구 행정구역이다. 광역단체인 광역시도 단위의 경우, 시군구에 비해 지역의 군집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사례 수가 2010년 기준으로 16개<sup>6)</sup>에 불과해 다층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시군구 단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일치한다는 점<sup>7)</sup>에서 지역 내에 공동의 생활권을 구성한다고 보아 군집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사례 수도 225개로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시군구보다 더 낮은 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면 군집효과를 더

---

6)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다.

7) 모든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것은 아니다.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만,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단위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수준의 단위는 시군구임으로 일반구로 분할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하부행정단위인 일반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분석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아니라, 그 밑의 일반구인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다.

지방자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나, 일반구를 하부행정단위로 갖는 특례시들의 경우 인구가 광역시보다도 많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특례시들은 지역특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거대함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닐지라도 일반구를 분석단위로 삼았다. 다만 유일하게 일반구 단위의 통계자료가 부재한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경우에만 일반구가 아닌 특례시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미시적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읍면동 수준에는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전국 225개의 시군구 중에서 2010년 KGSS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102개로 수도권 43개, 영남 27개, 호남 13개, 충청 14개, 강원/제주 5개의 시군구가 포함된다.

지역단위의 통계자료의 출처는 다양하다. 먼저 각 시군구의  $1\text{m}^2$  당 아파트 평균 가격과 변동계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직전 1년인 2009년 6월 2일부터 2010년 6월 1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부터 계산해 낸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았다. 지난 3년 간 아파트 평균가격의 변화와 변동계수의 변화는 2006년 6월 2일부터 2007년 6월 1일까지의 1년 동안 수집된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해 내었다.

시군구 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만을 제공함으로 일반구 수준의 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각 일반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시군구 별 인구밀도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시군구 통계시트를 활용하였으며, 일반구의 경우는 별도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통계연감으로부터 일반구의 면적과 인구수를 파악하여 인구밀도를 계산해 내었다.



## 2. 변수정의

### 1) 종속변수

한국 정당체제는 각 정당의 수명이 길지 않고, 계급정당에 기초한 서구와 다르게 이념적으로도 명확히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 계열 정당의 경우 경제적 가치의 배분과 관계된 이념의 좌-우 차원에서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 뚜렷한 차이를 찾기 힘들다(강원택, 2005).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좌파배제, 우파독점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최장집, 2010). 따라서 민주당계열 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준으로 계급투표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된 진보계열 정당은 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거둬들인 분열로 아직까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의 경우 비록 2017년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자유주의보다는 권위주의를 선호함으로써 확고한 보수적 색채를 유지해왔다(최장집, 2010). 또한 장기간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정당 투표를 종속변수로 놓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광역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후보인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분석에서는 전체 지방선거 투표 여부를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1,576명 중 투표하지 않은 529명, 응답거부자 2명,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sup>8)</sup> 23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선거에 참여한 1,022명 중에서 자신이 투표한 광역단체장의 정당을 묻는 설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29명과 아무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다는 11명을 제외하여 분석에 포함된

8) KGSS의 경우 만18세 이상이 대상인 것에 비하여, 한국의 선거연령은 만19세 임으로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유하지 못한 응답자가 나올 수 있다.

총 응답자 수는 982명이다. 이 982명에게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했으면 1,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정당 후보에게 투표했으면 0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 2) 독립변수

### (1) 개인수준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계급이다. 계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자체가 계급론의 중요한 논쟁거리인만큼,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사회학계 내에서 합의된 계급의 조작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테판 에젤(Edgell, 1993)에 따르면 대표적인 흐름으로는 크게 라이트(E.O Wright)로 대표되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의와 골드소르프(Goldthorpe)로 대표되는 신베버주의자들 간의 정의가 있다. 반면 라이트(Wright, 2015)는 계급에 대한 정의에는 개인특성접근, 기회 독점 접근, 착취 접근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며, 각각은 계층화 연구의 전통, 베버주의 연구 전통, 마르크스주의 연구 전통과 결부되어 있다. 개인특성접근은 주로 소득 혹은 재산이라는 단일 변수를 기준으로 계층을 분리한다. 중위소득의 50%에서 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특성접근의 경우, 조작화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류의 기준에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다보니 상층, 중산층, 하층의 분류가 단순히 양적인 차이에 불과할 뿐, 질적 차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기존의 계급투표 연구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골드소르프와 라이트는 각각 베버와 마르크스의 이론적 전통 위에서 계급을 분류함으로써 계급 간 질적 차이와 관계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골드소르프는 베버의 기준에 따라 시장 위치(market situation)와 작업 위치(work situatuin)를 결합하여 자신의 계급분류를 구성하였다. 시장 위

치는 수입원천, 경제력, 직업전망 등을 의미하며, 작업 위치는 생산과정에서 통제와 권력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크게 서비스계급, 중간계급, 노동계급이라는 3대 계급이 구성되며, 다시 서비스 계급은 상급의 전문가와 하급의 전문가로, 중간 계급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로, 노동계급은 육체노동 관리자, 숙련 육체노동자, 비숙련 육체노동자로 구성된다(Goldthorpe & Hope, 1972; Edgell, 1993, Giddens & Sutton, 2013).

라이트(Wright, 1985; 1997)는 자본재와 조직재, 그리고 기술재를 결합하여 계급범주를 구성했다. 자본재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면 조직재는 생산조직 내에서의 권위와 기술재는 자격증, 학력과 같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기술의 소유 여부와 관련된다. 라이트가 마르크스의 계급분류 방식인 자본재 소유 여부에 조직재와 기술재를 추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후기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인 신중간계급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다. 라이트에게 있어서 신중간계급은 자본재를 소유하지는 않았으나, 조직재 또는 기술재를 보유한 계급으로 자영업자와 함께 ‘계급관계 내에서의 모순적 위치(contradictory locations within class relations)’를 차지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의 위치가 모순적인 것은 자본재를 소유하지 못했기에 착취당하지만, 동시에 기술재와 조직재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신광영, 조돈문 & 조은, 2003; 신광영, 2004).<sup>9)10)</sup>

9) 라이트(Wright, 1997)는 『Class Counts』에서 조직재를 권위(authority)로, 기술재를 기술과 전문지식(skills and expertise)으로 발전시킨다. 권위는 조직내에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domination)을 대리하는 관리자와 감독관에게 부여된다. 반면 기술과 전문지식은 시장에서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기술지대(skill rent)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착취 개념을 지대 개념으로 변화시킨 것이긴 하나, 조작적 정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여전히 중간계급은 권위 또는 기술과 전문지식 중 하나를 보유한 계급관계 내의 모순적 위치로, 노동계급은 둘 다 보유하지 못한 위치로 정의된다.

10) 근래의 라이트(Wright, 2015)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기반한 과거 자신의 계급정의를 더 이상 배타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는 과거와는 다르게 베버적 전통의 계급정의와 계층화 연구 전통의 계급정의를 수용하여 세 가지 계급 메커니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에게 있어서 여전히 기존의 계급개념은 남아있다. 스탠딩이

본 연구에서는 라이트의 방식을 활용하여 계급을 분류하였다. 이는 골드소르프의 계급분류 방식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골드소르프는 직업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데, 여기서의 직업은 서구 사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구와 다른 직업구조를 가진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골드소르프의 방식에 따르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라는 이질적인 집단이 중간계급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게 된다. 이는 골드소르프 분류의 대상이 되었던 영국과는 다르게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라이트의 방식은 특정 사회에 기초한 직업구조가 아닌 자본재, 기술재, 조직재라는 자본주의라면 어느 사회에나 일반화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국에 적용하기에 이점이 있다. 그리고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계급을 분류하는 골드소르프의 방식과 다르게 라이트의 방식은 동일 직업 내에서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라이트의 계급분류 방식은 한국의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으로, 비교연구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김석준, 2009).

본 연구에서의 계급분류는 라이트의 계급분류를 활용했던 신광영(신광영, 조돈문 & 조은, 2003; 신광영, 2004)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먼저 자본재인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자본재를 보유하지 못한 피고용자인지에 따라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소유계급 내에서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계급과 구중간계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이며 파트타임 고용이 일반화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원 수가 4인 이상일 경우에만 자본계급으로 분류하였다. 비소유계급의 경우 기술재나 조직재를 보유했을 경우

---

프레카리아트와 대비한 안정적 노동계급은 라이트 본인이 제시한 계급관계 내의 모순적 위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피케티(Piketty)가 『21세기 자본』의 계급분석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를 개념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라이트는 스탠딩(Standing)의 새로운 계급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논지를 비판하며 프레카리아트와 노동계급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파쿨스키(Pakulski)와 워터스(Waters)의 계급죽음논쟁을 비판하며 현대국가들(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에도 자본, 권위, 기술과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계급경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중단계급으로, 둘 다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계급으로 분류하였다.

조직재 보유 여부를 분류하는 기준은 업무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하직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기술재는 보유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크게 열 가지로 분류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sup>11)</sup>에서 직업적 자율성을 가진 세 범주인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집단을 기술재를 보유한 집단으로, 나머지 집단을 기술재를 보유하지 못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은 타인에 고용되어 있으며(자본재 비소유) 직접 관리하는 부하직원이 없는(조직재 비소유)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기술재 비소유)이다.

이렇게 분류한 네 가지 계급이 한국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소득, 근로소득, 가외소득, 교육년수, 대졸자 비율, 주관적 계층의식, 연령을 대상으로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을 보면 분석결과 계급별로 뚜렷한 차이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가구소득의 경우 자본계급은 월 평균 74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신중단계급 427만원, 구중단계급 361만원, 노동계급 30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가외소득 역시 자본계급, 신중단계급, 구중단계급, 노동계급 순이었다. 반면 교육년수에서는 신중단계급이 14.2년, 자본계급 12.7년, 노동계급 11.3년, 구중단계급 10.9년 순이었다. 대졸자 비율에서는 확고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중단계급은 대졸자 비율이 69.7%에 달했으나, 자본계급은 49.2%, 노동계급과 구중단계급은 각기 39.5%와 33%에 불과했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자본계급, 신중단계급, 구중단계급, 노동계급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자본계급과 구중단계급이 52.0세

11) 1.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자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6.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근로자 0.군인

와 52.4세로 거의 같았으며, 신중단계급과 노동계급 역시 41.8세로 같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 간에는 물론, 같은 소유계급인 자본계급과 구중단계급 간에 그리고 같은 비소유계급인 신중단계급과 노동계급 간에서도 소득과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차이가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계급경계를 보여주는데 라이트식 계급분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표 1> 계급경계 변량분석

	가구소득 (만 원)	근로소득 (만 원)	가외소득 (만 원)	교육년수	대졸자 비율	주관적 계층의식	연령
자본계급	739.9	695.2	56.6	12.7	49.2	5.3	52.0
구중단계급	361.2	250.7	21.5	10.9	33.0	4.5	52.4
신중단계급	427.1	280.9	25.8	14.2	69.7	4.9	41.8
노동계급	307.1	154.3	13.9	11.3	39.5	4.3	41.8
F 값	23.93 ***	68.64 ***	10.39 ***	61.79 ***	49.71 ***	12.38 ***	51.14 ***

p<0.05 : \*    p<0.01 : \*\*    p<0.001 : \*\*\*

## (2) 지역수준 변수

12) 다만 연령의 경우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 사이에 10년 정도의 터울이 있을 뿐, 둘 사이에서는 거의 같게 나왔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들 중 다수가 임금노동자로 일하다가 퇴직 이후 생계를 위해 창업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 수준에서 사용된 독립 변수로는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 변수,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 변수, 그리고 두 변수 각각의 3년간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가 있다.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 변수는 본 연구의 지역수준 분석단위인 시군구 간의 경제력 격차를 의미한다. 시군구 별 경제력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적합한 변수는 시군구별 주민소득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주민들의 중위소득을 공개하는 미국 같은 국가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시군구 수준에서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의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역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종희, 2009; 박완규, 2010).

시군구 간 경제력 격차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만큼, 대리지표(proxy)를 활용하여 간접적 수준에서 격차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대리지표로는 사업체 종사자수(김종희, 2010; 박완규, 2010)와 주민세(김상호 & 박시현, 2006; 박완규, 2010), 빈곤율(김형용, 2010), 부동산 가격(박원호, 2009)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과 부동산 가격을 시군구별 경제력 수준을 보여줄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세를 제외한 이유는 이 두 변수가 시군구의 상대적인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 시군구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빈곤율은 근린사회 효과(neighborhood effect)를 다룬 연구들에서 시군구 간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이해되어왔다(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부동산 가격의 경우, 가구순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2010년 78.7%<sup>13)</sup>에 이를 정도로 유달리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은 “주거 환경은 물론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13) 국가주요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2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25)

중요한 자원” 이기도 하며,(손낙구, 2008: 7)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심해져서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현상 가운데 하나” 이기 때문이다(신광영, 2004: 171). 빈곤율의 조작적 정의는 시군구별 인구수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수의 비율이며, 부동산 가격의 조작적 정의는 시군구별 선거 직전 1년 간 거래된 1m<sup>2</sup>당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으로, 단위는 십 만원이다.<sup>14)</sup>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 변수가 부유한 지역사회와 빈곤한 지역사회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변수였다면,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 변수는 지역사회 내부의 경제력 격차를 보여주는 변수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해온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로는 지니계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전국 또는 광역시도 수준에서 주로 분석이 이루어져왔고, 자치구 수준에서의 분석은 전국이 아닌 특정 광역시도 내부의 자치구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왔다(이금이, 1999; 김태형, 권세원 & 이윤진; 2012). 시군구 수준에서는 주민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만큼, 지니계수 역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사회별 불평등을 다루는 연구는 드문 편이며, 합의된 대리지표도 부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선거 직전 1년 동안 거래된 1m<sup>2</sup>당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하고자 한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표준화시킴으로써 편차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준다. 따라서 시군구 별로 아파트 실거래가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변동계수가 낮은 지역사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반면, 변동계수가 높은 지역사회의 경우 아파

---

14)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주택이외의 거처가 추가되어 총 6개의 주거형태가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아파트만을 부동산 가격에 포함한 것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47.1%)이 단독주택(39.6%)을 초과하면서 아파트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주택을 포함할 경우 주택 유형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비교에 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트 가격이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과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이 지역사회의 경제력의 정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변수라면, 동태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과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변수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변수는 제4회 지방선거 직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 간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로부터 계산해낸 아파트 평균가격과 변동계수를 앞에서 설명한 제5회 지방선거 직전 1년 전(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아파트 평균가격과 변동계수로부터 빼 값으로, 지역사회의 3년 간의 아파트 평균가격과 변동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변화를 3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현직 지자체장의 임기를 고려한 것이다.

### 3) 통제변수

본 논문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사회인구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 정치관련 변수 그리고 지역 수준의 변수인 시군구 별 인구수를 통제하였다. 통제된 사회인구적 변수는 세대, 거주지역, 성별, 거주지의 도시화 수준, 종교이며 심리적 변수는 이념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 경제전망과 정치전망이다. 정치관련 변수는 정당지지와 17대 대선에서의 투표다.

사회인구적 변수 중 세대는 “19세 및 20대”를 준거집단으로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가변수(dummy variable)화 시켰다. 거주지역은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제주”로 범주화 한 후, “서울”을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성별은 “여성”이 “1”의 값을 갖는 가변수다. 거주지의 도시화 수준은 “외딴 곳”을 “1”로, “큰 도시”를 5로 단계적으로 코딩하였다. 종교는 “종교없음”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불교”, “개신

교”, “천주교”로 범주화 하였다.

심리적 변수인 이념성향은 “매우 진보적”부터 “매우 보수적”까지 다섯가지 범주로 측정되어 “중도”를 준거로 설정했다. 진보와 보수 간의 보혁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 정치적 대립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념균열을 통제하기 위해 이념성향 변수를 포함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기존의 계급과 투표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 중 다수가 지역과 세대를 통제하면 계급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제 이후에도 투표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강희경, 2016). 경제전망과 정치전망은 각각 “훨씬 좋아질 것이다”부터 “훨씬 나빠질 것이다”까지 다섯가지 범주로 측정되었으며 “마찬가지일 것이다”를 준거로 지정했다.

정치관련 변수 중 정당지지는 “지지정당 없음”을 준거로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 지지”, “기타 정당 지지”로 범주화하였다. 17대 대선에서의 투표는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로 범주화 한 후 “기타”를 준거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수준의 통제변수로는 시군구 별 인구밀도가 있다. 이는 시군구 별 규모의 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시군구 별 인구밀도의 단위는  $\text{km}^2$ 당 1,000명이다<sup>15)</sup>.

---

15) 시군구 별 인구의 경우 시군구 별 인구밀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사용변수 기술통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수정당 투표	976	0.40	-	0	1
세대					
30대	1,570	0.24	-	0	1
40대	1,570	0.23	-	0	1
50대	1,570	0.14	-	0	1
60대 이상	1,570	0.21	-	0	1
거주지역					
인천/경기도	1,576	0.28	-	0	1
부산/울산/경남	1,576	0.16	-	0	1
대구/경북	1,576	0.10	-	0	1
광주/전라	1,576	0.12	-	0	1
대전/충청	1,576	0.11	-	0	1
강원/제주	1,576	0.04	-	0	1
성별(여성)	1,576	0.53	-	0	1
거주지 도시화 수준	1,568	3.69	1.05	1	5
종교					
불교	1,560	0.24	-	0	1
개신교	1,560	0.24	-	0	1
천주교	1,560	0.08	-	0	1
이념성향					
매우 진보적	1,491	0.05	-	0	1
다수 진보적	1,491	0.28	-	0	1
다소 보수적	1,491	0.26	-	0	1
매우 진보적	1,491	0.06	-	0	1
주관적 계층의식	1563	4.56	1.72	1	10

<표 2 계속>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1,535	0.15	-	0	1
다소 좋아질 것이다	1,535	0.53	-	0	1
다소 나빠질 것이다	1,535	0.09	-	0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1,535	0.01	-	0	1
정치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1,525	0.07	-	0	1
다소 좋아질 것이다	1,525	0.41	-	0	1
다소 나빠질 것이다	1,525	0.09	-	0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1,525	0.03	-	0	1
정당지지					
새누리당	1,535	0.30	-	0	1
민주당	1,535	0.29	-	0	1
기타정당	1,535	0.13	-	0	1
17대 대선 투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1,537	0.17	-	0	1
한나라당 이회창	1,537	0.41	-	0	1
계급					
자본계급	1466	0.21	-	0	1
구중간계급	1466	0.30	-	0	1
신중간계급	1466	0.39	-	0	1
빈곤율	1576	2.68	1.29	0.47	7.04
1m <sup>2</sup> 당 평균 아파트 가격 (십만 원)					
아파트 변동계수	102	27.59	18.39	8.62	114.53
아파트 변동계수	102	0.29	0.09	0.13	0.46
아파트 가격 변동(십만 원)	102	5.80	4.80	-2.27	18.81
아파트 변동계수 변동	102	-0.03	0.08	-0.18	0.18
인구밀도(천 명/km <sup>2</sup> )	102	7.25	7.53	0.09	26.71

###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변수와 시군구 수준의 지역변수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수준의 변수만을 사용해왔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물론 영남과 호남의 지역균열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균열구조였던 만큼, 선행연구들 역시 지역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시켜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수준의 변수를 개인수준의 변수와 구분하지 않은 채 단층구조를 전제하고 분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개인수준의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군집효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고, 일종오류가 증가한다. 둘째, 회귀분석의 전제인 독립성 가정과 등분산성 가정이 위배되어 정확한 계수추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집락에 따라 회귀계수의 변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근거없이 배제하게 된다(강상진, 2005; 2016; 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이라는 서로 다른 분석단위를 포괄하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분석단위를 구분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가 채택하는 방법론은 다층분석이다. 위계선형모형이라고도 불리는 다층분석은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회귀계수가 집단에 따라 변산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 무선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이기에 분석단위가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는 분석에 적합하다(강상진, 2005; 2016; 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나라 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임으로 이항변수이다. 이항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기에 그대로 분석에 투입할 수 없다. 분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승산으로 변형시킨 후, 승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0과 1이라는 하한과 상한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로짓을 연결함수로 사용하는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활용할 것이다. 이 연결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ta_{ij} = \ln\left(\frac{p}{1-p}\right)$$

여기서  $\eta_{ij}$ 는 0과 1의 한계를 갖지 않는 실수영역 전체의 값이 된다 (홍세희, 2005; 강상진, 2016).  $\eta_{ij}$ 를 활용하여 개인과 집단이라는 2개의 수준을 갖는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명세화 하면 다음과 같다.

$$\text{개인수준 : } \eta_{ij} = \beta_{0j} + \beta_{1j}X_{1ij} + \dots + \beta_{pj}X_{pj}$$

$$\text{집단수준 : }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1j} + \dots + \gamma_{0q}W_{qj} + u_{0j}$$

$$\beta_{pj} = \gamma_{p0} + \gamma_{p1}W_{1j} + \dots + \gamma_{pq}W_{qj} + u_{pj} \text{ for } p > 0$$

여기서  $\eta_{ij}$ 는 j집단의 i라는 개인의 확률이 연결함수를 통해 변형된 로짓이며,  $X_{pij}$ 는 p번째 설명변수,  $\beta_{pj}$ 는 설명변수  $X_{pij}$ 의 회귀계수에 해당한다. 다층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beta_{pj}$ 가 고정효과가 아니라 집단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무선효과라는 것이다. 집단수준의 수식은 무선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beta_{pj}$ 의 변산을 설명한다.  $W_{qj}$ 는  $\beta_{pj}$ 의 변산을 설명하는 q번째 집단특성의 변수이며  $\gamma_{p0}$ 은 집단특성변수  $W_{qj}$ 의 회귀계수로 고정효과이다. 중요한 것은  $u_{pj}$ 인데 이는  $\beta_{pj}$ 의 변산 중에서 집단특성변수들로 지역별 확률의 차이를 설명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잔차분산에 해당한다(강상진, 2016).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무조건모형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무조건모형 분석은 종속변수 전체 분산 중에서 집단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모형으로 다층분석의 기초모형에 해당한다. 무조건모형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중에서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분산의 상대적 크기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 분산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면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임으로 다층모형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는 지표가 된다.

### 1) 모형1

개인수준 : 투표 =  $\beta_{0j}$

지역수준 :  $\beta_{0j} = \gamma_{00} + u_0$

둘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존에 알려진 주요 통제변수들만을 포함한 조건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그리고 지역수준의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한 이후에도 시군구 수준에서 설명되지 않은 지역적 차이가 남아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 2) 모형2

개인수준 : 투표 =  $\beta_{0j} + \beta_{pj}$ (개인수준변수)

지역수준 :  $\beta_{0j} = \gamma_{00} + \gamma_{0q}$ (거주지역) +  $u_0$

$$\beta_{pj} = \gamma_{p0}$$

셋째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의 주요 통제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인 계급을 포함하는 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이 모형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인해서 계급과 투표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할 것이다.

### 3) 모형3

개인수준 : 투표 =  $\beta_{0j} + \beta_{1j}$ (계급) +  $\beta_{pj}$ (개인수준변수)

지역수준 :  $\beta_{0j} = \gamma_{00} + \gamma_{0q}$ (거주지역) +  $u_0$

$$\beta_{1j} = \gamma_{10} + u_0$$

$$\beta_{pj} = \gamma_{p0}$$

넷째로 지역수준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여, 개인수준변수와는 별개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수준 변수가 있는지 살필 것이다.

#### 4) 모형4

개인수준 : 투표 =  $\beta_{0j} + \beta_{1j}(\text{계급}) + \beta_{pj}(\text{개인수준변수})$

지역수준 :  $\beta_{0j} = \gamma_{00} + \gamma_{0p}(\text{거주지역}) + \gamma_{0q}(\text{지역수준변수}) + u_0$

$$\beta_{1j} = \gamma_{10} + u_0$$

$$\beta_{pj} = \gamma_{p0}$$

다섯째로 개인수준의 변수인 계급과 지역수준의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적 조건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계급투표 혹은 계급배반 투표를 만들어내는 기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지역의 경제적 조건으로는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는 변수인 시군구별 빈곤도와 아파트 평균 가격,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시군구별 아파트 평균 가격의 변동계수, 그리고 아파트 평균 가격과 변동계수의 변화량이 있다.

#### 5) 모형5 ~ 9

개인수준 : 투표 =  $\beta_{0j} + \beta_{1j}(\text{계급}) + \beta_{pj}(\text{개인수준변수})$

집단수준 :  $\beta_{0j} = \gamma_{00} + \gamma_{0p}(\text{거주지역}) + \gamma_{0q}(\text{지역수준변수}) + u_0$

$$\beta_{1j} = \gamma_{10} + \gamma_{1q}(\text{지역수준변수}) + u_0^{16)}$$

$$\beta_{pj} = \gamma_{p0}$$

---

16) 개인수준 변수와 집단수준 변수의 상호작용에서는 무선효과 발생 여부에 따라  $u_0$ 가 존재할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정효과로 판단하여 해석한다.



## IV.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따른 계급별 투표 선택의 변화

### 1. 지역, 통제변수 그리고 계급의 효과

모형 1, 2, 3은 본격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계급별 투표선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예비분석에 해당한다.

#### 1) 투표에 대한 지역효과의 크기

<표 3>의 모형1은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으로, 다층분석의 기준모형에 해당한다. 주목해야 할 통계치는 투표에 있어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함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ICC(intraclass correlation)<sup>17)</sup>로, 0.23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는 한국의 유권자의 투표의 차이에 있어 23%는 순수하게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서 지역사회의 효과이며, 나머지 77%만이 유권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임을 보여준다. 또한 LR Test의 결과 모형은  $p < 0.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수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상수의 무선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군집효과가 존재한다는 의미며, 따라서 개인과 지역의 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다층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일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는 다르게 군집효과를 통제하여 더 정확한 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

17) ICC는 전체 잔차 중에서 집단(시군구) 수준의 잔차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표 3> 무조건 모형(지역효과의 크기)

모형1		
	Coef	S.E
상수	-0.57 ***	0.13
무선효과	0.98	0.13
ICC	0.23	0.05
LR Test	69.34 ***	
N		976

p<0.05 : \*    p<0.01 : \*\*    p<0.001 : \*\*\*

## 2) 투표에 통제변수가 미치는 영향

<표 4>의 모형2는 통제변수들만 포함한 모형이다.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이다. 먼저 “19세 및 20대”를 준거로 삼은 세대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세대균열이 기존의 지역균열을 대체하는 균열로 지목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만하다.<sup>18)</sup> 성별, 거주지의 도시화 수준, 종교, 이념 성향, 경제전망, 정치전망 역시 투표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유의미한 변수는 정당지지, 17대 대선에서의 투표, 거주지역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이다. 정당지지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평균으로 고정했을 때<sup>19)</sup>, “지지정당 없음”은 24.1%, “한나라당 지지”는 82.9%,

18) 본 논문의 분석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준거집단을 “30대” 또는 “40대”로 바꾸어 분석을 실시하면, “60대 이상”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투표에 있어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에 세대균열이 존재한다면 이는 “30대 및 40대”와 “60대 이상” 간의 균열이다.

19) 이하에서도 투표 예측확률은 특별한 언급이 있지 않는 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평균값

“민주당 지지”는 3.7%, “기타정당 지지”는 8.5%가 보수정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을 보였다. 17대 대선에서의 투표 역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17.7%, “한나라당 이명박”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38.9%, “기타”는 15.9%의 보수정당 지지 예측확률을 보여주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이 28.9%인 “서울”에 비해 64.7%인 “대구/경북”과 5.5%인 “강원/제주”만이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sup>20)</sup>과 “호남”은 “서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영남 대 호남, 그리고 유동하는 기타지역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지역균열이 점차 쇠퇴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계급투표를 다룬 연구에서 새롭게 제기된 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은 최하층은 16.8%, 최상층은 44.6%로 최상층으로 갈수록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였다.

모형의 적합도 역시  $p < 0.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오면서, 상수항의 무선효과 역시 유의미했다. ICC 값은 모형1에 비해 0.02만큼 줄어 0.21로 나왔다. 이는 모형2에서 새롭게 투입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투표의 차이에 있어 21%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지역균열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별 지역 간 차이가 무척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감정은 망국병이라고 불리며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그런만큼 정치에서 ‘지역’이라는 요소는 곧 영호남간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지역을 고려한다는 것은 곧 지역균열을 다룬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ICC 값이 0.21이 나왔다는 것은 같은 영남 혹은 호남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투표에 서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표에 있어 지역의 효과를 영호남간의 지역균열의 효과로 환원해왔던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알 수 있다.

---

으로 통제된 상황에 도출된 값이다.

20) 실제로 경남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꺾고 승리하였다.

〈표 4〉 통제변수 모형

모형2			
LEVEL-1	Coef		S.E
정당지지			
새누리당	2.73	***	0.34
민주당	-2.11	***	0.41
기타	-1.24	**	0.43
주관적 계층의식	0.15	*	0.08
17대 대선 투표			
한나라당 이회창	1.21	***	0.33
LEVEL-2			
지역			
대구/경북	1.51	*	0.64
강원/제주	-1.95	*	0.85
상수	-2.89	*	1.25
무선효과	0.93		0.22
ICC	0.21		0.08
LR Test	10.72	***	
N			881
p<0.05 : *    p<0.01 : **    p<0.001 : ***			

21)

### 3) 투표에 계급이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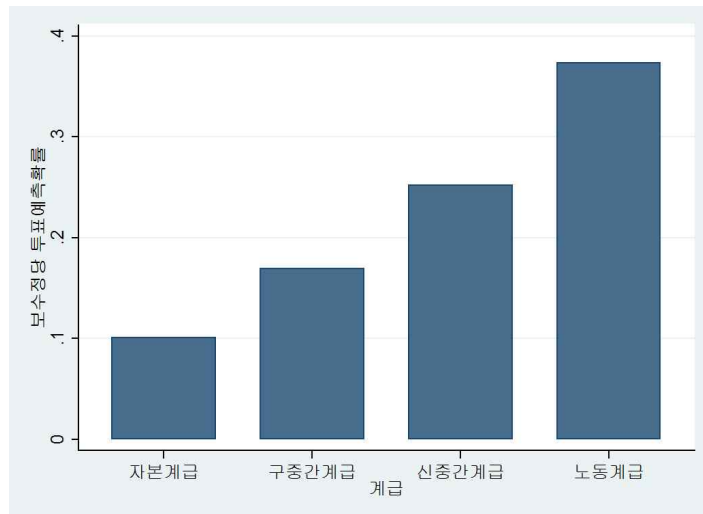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인 계급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본계급과 구중간계급에 비해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급은 유의미할 정

21) 본문의 <표 4>에서 <표 9>까지는 유의미한 변수만 포함되었다.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표는 부록을 참조할 것.

도는 아니지만 신중단계급보다도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추정된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을 살펴보면 <그림1>에서처럼 자본계급은 10.1%, 구중단계급은 16.9%, 신중단계급은 25.2%, 노동계급은 37.3%로 노동계급이 가장 높았다. 지역균열, 이념균열, 세대균열, 정당지지 등 기존의 연구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온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을 더 지지하는 계급배반 투표가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가설1과 가설 1-2의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회귀계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LR Test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 계급변수의 무선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계급변수의 무선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은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시군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계급에 속하는 유권자들일지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보수정당에 투표할수도, 투표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왜 기존 연구들이 투표에 있어 계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1> 계급과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표 5>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모형3			
LEVEL-1	Coef		S.E
정당지지			
새누리당	2.84	***	0.42
민주당	-2.30	***	0.46
기타	-1.34	**	0.45
주관적 계층의식	0.16	+	0.08
17대 대선 투표			
한나라당 이회창	1.29	***	0.36
계급			
자본계급	-1.67	*	0.74
구중간계급	-1.07	**	0.41
LEVEL-2			
지역			
대구/경북	1.28	*	0.59
대전/충청	-0.98	+	0.59
강원/제주	-1.84	*	0.81
상수	-2.42	+	1.32
무선효과	1.03		0.33
ICC			
LR Test	5.11	*	
N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 2. 계급별 투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

모형 4에서 모형9까지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계급별 투표선택의 변화여부를 검증한다.

### 1) 투표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

모형4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들이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근린사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근린 사회효과란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인 근린의 특성이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린사회 효과는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맥락만으로 발생하는 효과이기에 그렇다. 반대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주민의 개인적 특성만으로 특정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를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라고 한다(Veenstra, 2004).

분석결과 독자적으로 지역주민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수준의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수준의 변수가 지역주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주민별 특성에 따라 지역수준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지역의 경제적 조건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모형4			
LEVEL-1	Coef		S.E
정당지지			
새누리당	2.79	***	0.41
민주당	-2.30	***	0.45
기타	-1.42	**	0.45
주관적 계층의식	0.16	+	0.08
17대 대선 투표			
한나라당 이회창	1.26	***	0.36
계급			
자본계급	-1.50	*	0.73
구중간계급	-1.07	**	0.40
LEVEL-2			
지역			
강원/제주	-2.52	+	1.36
상수	-1.17		1.95
무선효과	0.95		0.35
LR Test	3.56	*	
N			
p<0.1 : +    p<0.05 : *    p<0.01 : **    p<0.0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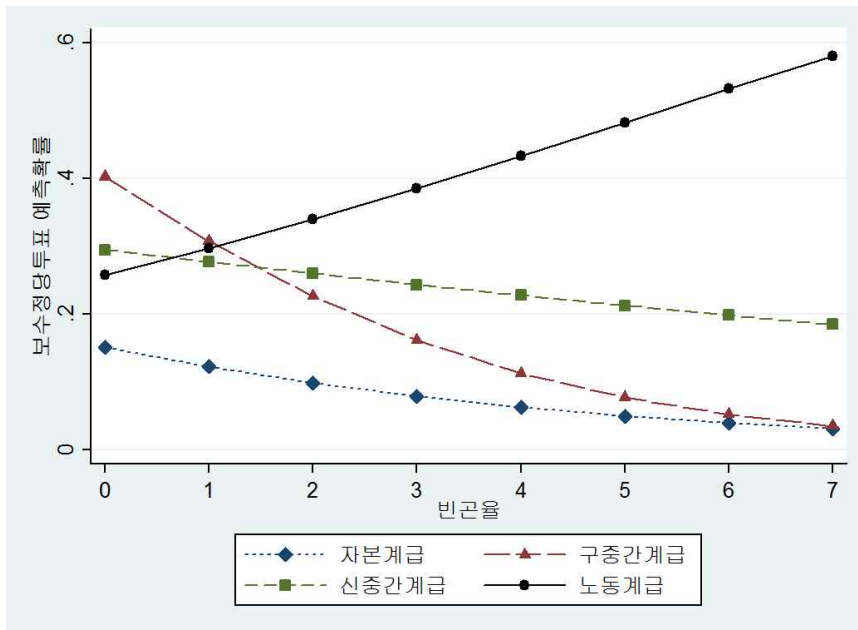
## 2) 계급별 투표에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이 미치는 영향

모형5에서 모형6까지는 투표에 있어서 계급의 효과가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설 3, 5를 검증한다.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 변수 중 시군구 별 빈곤율은 모형5에서, 아파트 평균가격은 모형6에서 분석되었다.



먼저 모형5를 살펴보면, 시군구별 빈곤율에 따라 노동계급과 구중단계급 사이에서 다른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p>0.05$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2>에 확인되듯이, 시군구의 빈곤율이 높아질수록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구중단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sup>22)</sup> 빈곤율이 하위 10개 지역의 평균인 1%일 경우, 보수정당에 자본계급이 투표할 확률은 12%, 구중단계급은 31%, 신중단계급은 28%, 노동계급은 30%였다. 반면 빈곤율이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인 5.4%라면, 보수정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은 자본계급 5%, 구중단계급 7%, 신중단계급 21%, 노동계급은 50%였다.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빈곤율이 4.4%만큼 올라가자 구중단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이 24% 감소한 것에 비해 노동계급은 오히려 20% 증가한 것이다.

<그림 2> 지역사회 빈곤율과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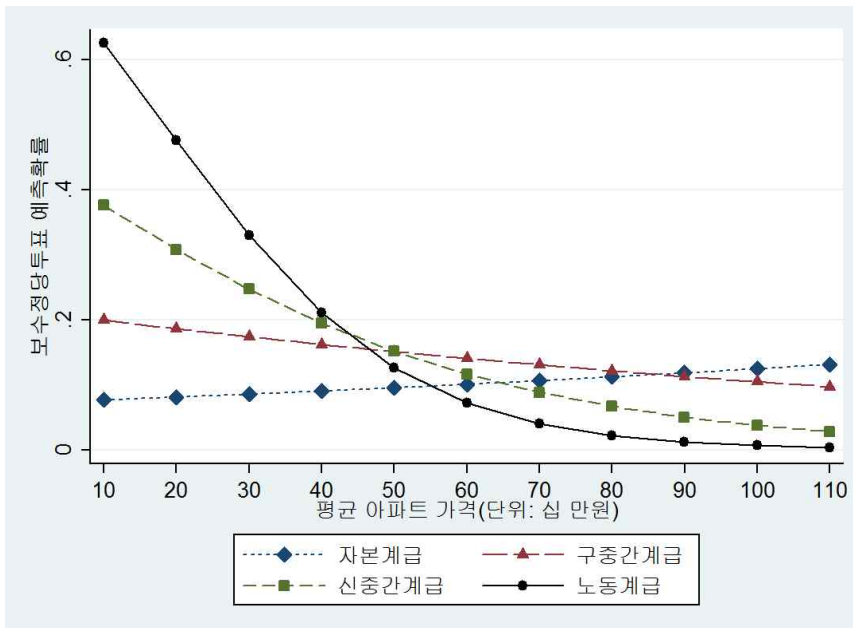


22) 구중단계급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할 경우, 노동계급에 더하여 신중단계급도 구중단계급과는 다른 투표행태를 보였다. 빈곤율이 올라갈수록, 즉 지역의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노동계급과 신중단계급은 보수정당에 더 많이 투표하는 것에 비해, 구중단계급은 지역의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보수정당에 덜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6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올라갈수록 자본계급과 구중단계급에 비해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노동계급은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지만,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 지역사회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및 구중단계급 사이에 다른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p>0.05$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아파트 가격 상위 10개 지역의  $1m^2$  당 평균 아파트 가격인 664만원과 하위 10개 지역의 평균 가격인 107만원을 기준으로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예측확률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위 10개 지역에서 자본계급은 8%, 구중단계급은 20%, 신중단계급은 37%, 노동계급은 62%의 보수정당 투표예측확률을 보였다. 그러나 상위 10개 지역에서는 자본계급 10%, 구중단계급 13%, 신중단계급은 10%, 그리고 노동계급은 단지 5%에 불과했다. 같은 노동계급일지라도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보수정당 투표예측확률에서 57%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림 3> 지역사회 아파트 평균가격과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두 모형을 종합해보면 계급별 투표가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이 상승할수록 노동계급은 타 계급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따라서 가설 2의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들 및 모형3에서 검증된 전국단위의 분석에서 노동계급의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 주원인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의 계급배반투표 때문임을 알려준다.

<표 7>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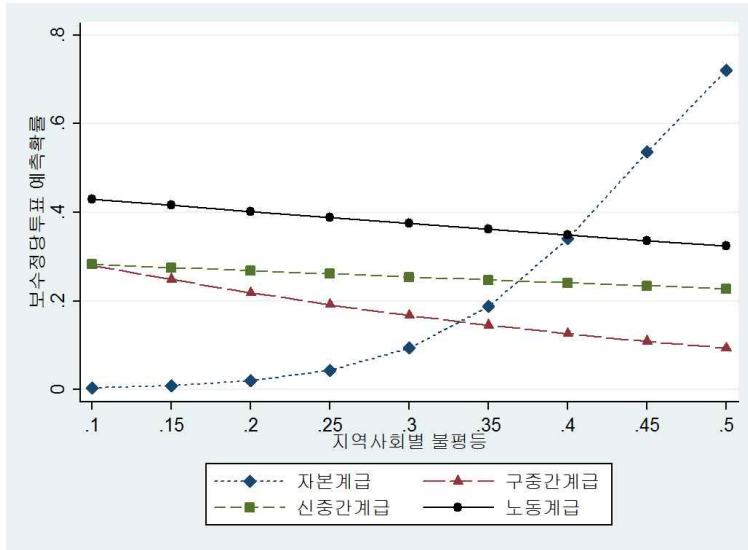
Level-1	모형5		모형6	
	Coef	S.E	Coef	S.E
계급				
자본계급	-0.67	1.55	-3.68	1.19
구중간계급	0.66	0.88	-2.43 ***	0.69
신중간계급	0.19	0.80	-1.32 *	0.67
Level-2				
지역사회별 경제적 수준				
빈곤율	0.20	0.25		
아파트 평균가격			-0.06 *	0.03
자본계급 X 빈곤율	-0.44	0.54		
구중간계급 X 빈곤율	-0.61 *	0.30		
신중간계급 X 빈곤율	-0.28	0.28		
자본계급 X 아파트 평균가격			0.07 *	0.03
구중간계급 X 아파트 평균가격			0.05 *	0.02
신중간계급 X 아파트 평균가격			0.03	0.02
상수	-3.41	1.52	-0.89	1.50
무선효과	0.93	0.23	0.90	0.24
LR Test	8.86(상수) **		7.65(상수) **	
N	840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 2) 계급별 투표에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이 미치는 영향

모형7에서는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본계급은 노동계급 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계급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이 커질수록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노동계급에 비해 자본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로써 가설 4의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불평등 수준이 낮은 10개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계수인 0.16과 가장 높은 10개 지역 변동계수 0.43을 사용하여 도출한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평등이 작은 지역에서 자본계급은 1%, 구중간계급은 24%, 신중간계급은 27%, 노동계급은 43%의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을 보였다. 반면 불평등이 큰 지역에서는 자본계급 46%, 구중간계급 12%, 신중간계급 24%, 노동계급 34%의 투표예측확률을 보였다.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노동계급은 지역사회의 불평등이 커질수록 보수정당 투표확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본계급은 역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즉, 거주지역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자본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해 보수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계급이 불평등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셈이다.

<그림 4>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과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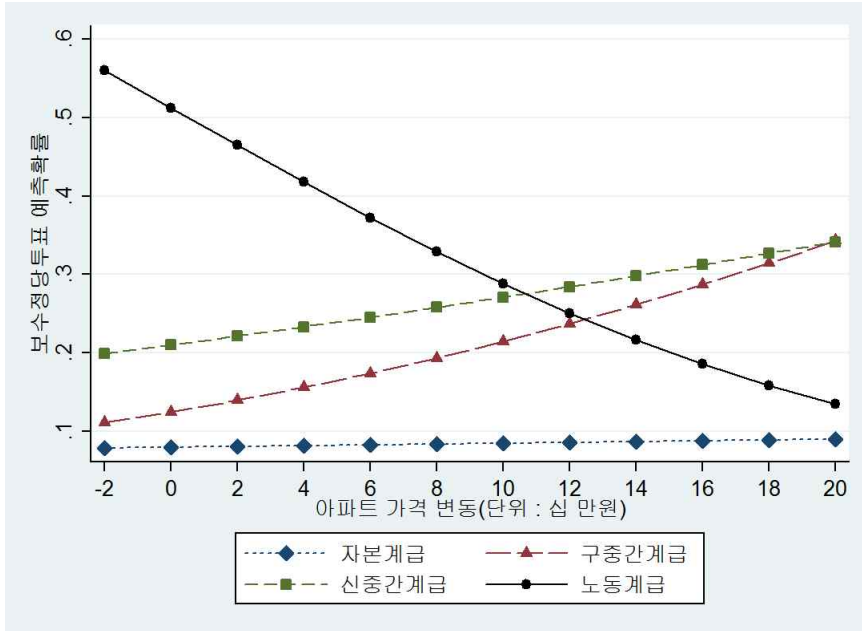
<표 8>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모형7		
Level-1	Coef	S.E
계급		
자본계급	-6.92 **	2.62
구중간계급	-0.44	1.30
신중간계급	-0.69	1.29
Level-2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	-1.13	3.29
아파트 평균가격 변화		
자본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17.22 *	8.22
구중간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2.18	4.27
신중간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0.41	4.26
상수	-2.03	1.70
무선효과	0.96	0.34
LR Test	3.82	*
N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 3) 계급별 투표에 지역사회별 경제적·불평등 수준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모형8과 모형9에서는 지역사회별로 경제력 수준 및 불평등 수준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모형8의 경우, 지역의 경제력 수준의 대리 지표인 아파트 평균가격이 지난 3년 간 더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노동계급이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이 검증되었다.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적게 오른 10개 지역의  $1\text{m}^2$  당 평균 상승가격인 5.3만원을 기준으로 자본계급 8%, 구중간계급 13%, 신중간계급 21%, 노동계급 50%이었으며, 가장 크게 오른 10개 지역의 평균인 154만원을 기준으로 자본계급 9%, 구중간계급 28%, 신중간계급 31%, 노동계급 19%이었다.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거주할수록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은 높아진 것에 비해, 노동계급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로써 가설3의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반면 모형9에서는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의 변화가 계급별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으나, 계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가설 5의 영가설을 기각할 수는 없었다.

<그림 5> 지역사회의 경제력과 불평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계급별 보수정당 투표 예측확률



<표 9> 지역사회별 경제력 및 불평등의 변화가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Level-1	모형8		모형9	
	Coef	S.E	Coef	S.E
계급				
자본계급	-2.49 *	1.05	-1.58 *	0.74
구중단계급	-2.00 **	0.57	-1.18 **	0.38
신중단계급	-1.37 *	0.55	-0.56	0.39
Level-2				
지역사회별 불평등 수준				
지역사회별 경제력 수준	-0.10	0.08		
자본계급 X 지역사회별 경제력 변화	0.10			
구중단계급 X 지역사회별 경제력 변화	0.16 *	0.07		
신중단계급 X 지역사회별 경제력 변화	0.13 *	0.07		
자본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변화			5.61	8.49
구중단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변화			-5.03	4.30
신중단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변화			-0.16	4.23
상수	-2.44	1.67	-2.79 *	1.19
무선효과	0.95	0.24	0.88	
LR Test	9.33(상수)	**	7.13 ** (상수)	
N	840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 V. 결론

본 연구는 계급이 투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유권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수준에서의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를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 구축한 후, 다층모형을 통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노동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것이 서구와는 다른 계급형성의 과정을 거친 한국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서구는 오랜 계급형성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경제력에 따라 지역의 계급화, 공동체의 계급화가 이루어져왔다. 반면 한국은 경제력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강남을 전범으로 삼아 배타적인 중간계급 문화가 형성된 반면, 경제력이 낮은 지역에서 이에 대비되는 노동계급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 결과 경제력이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계급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며, 부유한 지역에서는 중간계급 문화로부터 배제된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급투표 현상이 출현한다. 다만 경제력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이 더 다수이기에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는 노동계급이 보수정당을 더 지지하는 계급배반투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계급과 투표의 관계를 선행연구들처럼 계급투표 혹은 계급배반투표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급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같은 계급일지라도 전혀 다른 투표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부의 경제력 격차 역시 계급별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노동계급에 비해 자본계급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자본계급은 비단 노동

계급 뿐만이 아니라 구중관계급과 신중관계급에 비해서도 지역사회의 불평등이 커질수록 보수정당에 더 큰 지지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부의 불평등에 자본계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계급투표에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지역사회의 경제력과 지역사회 내부의 불평등의 변화가 계급별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내부의 불평등 변화는 계급별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경제력 변화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사는 노동계급일수록 구중관계급과 신중관계급에 비해 보수정당 지지를 덜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계급과 투표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계급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지역수준에서의 차이를 사상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별로 계급별 투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유권자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다. 계급구조에서의 위치는 개인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실제 계급형성과정이 발생하는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 투표에서 후보자 선택을 다룬 연구에서는 최초로 개인과 지역수준에서 자료를 구축한 후 다층모형을 분석기법으로 활용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거주해서 발생하는 군집효과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셋째, 지역균열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투표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같은 영남 혹은 호남에 속하더라도 시군구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 이상 한국의 선거 연구에서 ‘지역’을 영호남 간의 지역주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본 논문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투표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단위인 시군구의 적실성 문제다. 영남이라고 다 같은 영남이 아니듯이,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웃들과 상호교류하는 근린으로 보기에 시군구는 지나치게 큰 단위일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시군구보다 더 낮은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삼거나, 분석 대상이 총선일 경우 선거구를 분석단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계급의 조작화 문제이다. 본 연구는 라이트의 논지를 따라 자본계급,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노동계급으로 계급을 분류하였으나, 라이트의 분류가 한국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중인 사안이다(구해근, 2007). 특히 대자본가와 극빈층의 경우 사실상 서베이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내희. (2004). 강남의 계급과 문화. 황해문화, 42, 62-84.
- 강상진. (2005). 다층모형분석.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4(2), 51-67.
- \_\_\_\_\_. (2003). 한국의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푸른길.
- \_\_\_\_\_.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_\_\_\_\_.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나남.
- \_\_\_\_\_.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국제정치 (KWP), 27(3), 99-129.
- \_\_\_\_\_.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3), 5-28.
- 강희경. (2016). 계급 정치와 ‘계층 배반 투표’. 경제와사회, 110, 38-81.
- 고원. (2012). 한국에서 복지제도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경제와사회, 12-38.
- \_\_\_\_\_. (2013). 정치 균열의 전환과 2012년 대통령선거. 동향과 전망, 143-176.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_\_\_\_\_. (2007).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 경제와사회, 255-289.
- \_\_\_\_\_. (2012). 한국의 중산층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비평, 40(1),

403-421.

-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75.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215-240.
- 김상호. & 박시현. (2006). 한국 시·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 1-24.
- 김석준. (1993). 부산지역 계급 구조와 변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9). 부산지역 계급 구조 연구. *한국민족문화*, (35), 275-314.
- 김석호., 박바름 & 하헌주. (2013). 사회연결망 특성이 후보 선택시기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 김석호 & 한수진. (2015).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지방선거 분석. 나남.
- 김수정, & 최셋별. (2012). 문화강좌를 통해 본 서울 강남과 강북의 문화취향. *문화경제연구*, 15(1), 3-29.
- 김영수 (2013). 민주노조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 *마크스주의연구*, 10(3), 66-93.
- 김영정. (2009). 한국의 지역불균등: 1960-2005 년. *지역사회학*, 11. 5-39.
- 김왕배. (2011).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 김욱. (2011). 결론과 시사점. *한국 선거 60년*. 오름.
- 김종희. (2010). 일반논문: GRDP (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지방행정연구*, 24(1). 207-235.
- 김준. (2005). 잃어버린 공동체?. *경제와사회*, 71-106.
- 김창석. (2006). 인구와 파워엘리트 분포로 본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국토계획*, 41(7), 7-20.
- 김태형, 권세원, & 이운진. (2012). 서울시민의 개인 및 지역 효과에 의한 건강불평등. *서울도시연구*, 13(3), 15-35.
- 김형용.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59-92.

- 남준우. (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 정책연구. 7(4). 1-24.
- 남찬섭, 김수정, 송유진, 장세훈, & 최영준. (2013). 서민 (庶民) 의 집합적 의미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39), 44-82.
- 민주노총. (2003). 노동자 문화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배균, & 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87-306.
-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한국 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후마니타스.
- 박완규. (2010).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Journal of the KRSA. 26(4). 75-101.
- 박원호. (2009).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 년대의 한국 선거: 지역주의“ 이후“ 의 경제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 박인석. (2013). 아파트 한국사회. 현암사.
- 박지환. (2005). 분당 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계급-공간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8(1), 83-123.
- 박찬욱, 김경미, & 이승민. (2008). 제 17 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 17 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 박찬욱. (2000). 4· 13 총선의 정치적 의의. 김용호 외, 4, 295-315.
- \_\_\_\_\_. (2013).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특징.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 박철수. (2013). 아파트 :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 박해광. (2008). 한국 노동자문화의 성격. 민주주의와 인권, 8(3), 89-124.
- 서민철. (2006). 한국의 지역불균등발전과 공간적 조절양식. 한국교원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복경. (2013). 정당지지의 사회적 기초: 15~ 18 대 대선, 민주당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 · 한국선거학회 공동 토론회, 민주통합당의, 18, 60-77.
- 성경룡. (2015). 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한국사회학. 49(2). 193-231.
-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 (2010).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 수도권편. 후마니타스.
- 송기욱, 김창석, & 남진. (2010).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45(2), 35-49.
- 송호근. & 유형근. (2009). 노사관계와 노동의식: 거주지의 공간성과 노동계급의 형성: 울산 북구와 동구의 비교연구. 산업노동연구. 15(2). 185-223.
- \_\_\_\_\_. (2010).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정요인. 경제와사회. 237-262.
- 신광영, 조돈문, & 조은. (2003). 한국 사회 의 계급론 적 이해 (Vol. 529). 한울아카데미.
- 신광영. (1993). 춘천지역에서의 지역주의와 투표행위. 한국사회학. 26(SUM). 35-58.
- \_\_\_\_\_. (2004). 한국의계급과불평등. 을유문화사.
- \_\_\_\_\_.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35-60.
- 오현주 & 길정아. (2013) 유권자 이념과 투표선택.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 온만금. (2003). 한국 정당체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 (1948-2000). 한국사회학. 37(3). 135-157.
- 윤광일. (2013). 지역주의 투표.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국제정치 (KWP), 18(2), 155-178.
- 이금이. (1999). 소득 불평등과 건강 수준에 관한 다단계 분석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용마. (2013). 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박사 논문.
- \_\_\_\_\_. (2015). 2000년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구조. 2014년 지방선거 분석. 나남.
- 이우진 & 이원석. (2012). 한국 역대 선거에 있어서의 이념과 투표: 2006 ~ 2010. 한국경제의 분석, 18(2), 97-136.
- 이재열. (2014).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1세기북스
- 이종래. (2003). 노동자집단의 투표행위와 계급정체성. 경제와사회, 58, 91-120.
- 장세훈. (2016). 서민의 사회학적 발견. 경제와사회. 109. 83-112.
- 장승진. (2013). 2012 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7(4), 51-70.
- 전병유 & 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동향과 전망, 9-51.
- 정선거. (2015). 생활권 분화에 따른 밀류 (Milieus) 의 공간적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26(2), 315-341.
- 정영태. (1993). 계급별 투표행태를 통해본 14 대 대선. 경제와사회, 17, 73-99.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 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 출판.
- 조돈문. (2006).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경제와 사회. 72. 11-41.
- \_\_\_\_\_. (2009). 브라질 대통령선거와 계급투표. 라틴아메리카연구. 22(1). 5-42.
- 조명래. (1992). 공간의 위기와 공간의 정치경제학. 공간과 사회, 2, 23-36.
- \_\_\_\_\_. (1993). 한국사회의 계급과 지역. 경제와 사회. 93.



- 조효래. (2001). 창원과 울산의 지역노동운동. 지역사회학. 3.
- 조은진. (2007). 상류층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배제의 방식. 경제와 사회. 122-163.
- 정헌주. (2004). 석탄산업과 탄광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쇠퇴. 지역사회학, 79-116.
- 최선헌. (2003). 특집; 한국, 한국인의 욕망: 욕망의 구도로 본 서울의 지형학-강남과 강북 그 대립적 이미지. 한국문화연구, 4, 49-70.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돌베개.
- \_\_\_\_\_.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2).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P'ollit'eia.
- 한귀영. (2013). 2012 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동향과 전망, 9-40.
- 한상진 (1998). 지역주의와 계급정체감이 투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7-96.
- 홍두승 & 구해근. (2001). 사회계층 · 구해근, 다산.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황익주. (1997). 공장노동자들의 여가생활: 경기도 성남지역 노동자들의 사례연구.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정신문화연구원.

## 2) 해외문헌

- Alford, R. R. (1962). A suggested index of the association of social class and voting. Public Opinion Quarterly, 417-425.
- \_\_\_\_\_. (1963). The role of social class in American voting behavior.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6(1), 180-194.
- Althusser, L. (2006).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 towards an investigation). *The anthropology of the state: A reader*, 9(1), 86-98.
- \_\_\_\_\_. (1969). *For marx* (Vol. 2). Verso.
- Althusser, L., & Balibar, E. (1997). *Reading capital* (p. 646898). London: Verso.
- Andersen, R., & Heath, A. (2002). Class matters: the persisting effects of contextual social class on individual voting in Britain, 1964-97.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2), 125-138.
- Bourdieu, P., & Wacquant, L. J.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London: Edward Arnold.
- Clark, T. N., & Lipset, S. M. (Eds.). (2001).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Edgell, S. (1993). *Class: Key Concept in Sociology*. Taylor & Francis
- Engels, F. (1993).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Ernesto, L., & Chantal, M.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 Evans, G. (1993). Class, prospects and the life-cycle: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class position and political preferences. *Acta Sociologica*, 36(3), 263-276.
- \_\_\_\_\_. (2000). The continued significance of class voting.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401-417.
- Giddens, A., & Sutton, P. W.(2013). *Sociology*. 7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 Gould, R. V. (1991). Multiple networks and mobilization in the Paris Commune, 18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6-729.

- \_\_\_\_\_. (1993). Trade cohesion, class unity, and urban insurrection: artisanal activism in the Paris Commu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4), 721-754.
- 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JHU Press.
- \_\_\_\_\_. (2003). *Paris, capital of modernity*. Psychology Press.
- \_\_\_\_\_. (2006). *The Limits to Capital* (new and fully updat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Verso.
- Hout, M., Brooks, C., & Manza, J. (1995).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the United States, 1948-199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5-828.
- Huckfeldt, R., Sprague, J., & Levine, J. (2000).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liberation in the 1996 election: Campaign effects on accessibility, certainty, and accu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1-651.
- 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04), 991-1017.
- \_\_\_\_\_. (1977). Long term trends in mass support for European unification. *Government and Opposition*, 12(2), 150-177.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 & Sutton, P. W.(2013). *Sociology*. 7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 Goldthorpe, J. H., & Hope, K. (1972). Occupational grading and occupational prestige. *Inform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11(5), 17-73.
- Gould, R. V. (1991). Multiple networks and mobilization in the Paris

- Commune, 18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6-729.
- \_\_\_\_\_. (1993). Trade cohesion, class unity, and urban insurrection: artisanal activism in the Paris Commu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4), 721-754.
- Katznelson, I. (1981). *City Trenches: Urban Politics and the Patterning of Clas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6). Working-class formation: Constructing cases and comparisons. *Working-class formation: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3-41.
- Korpi, W. (1978). Social democracy in welfare capitalism—structural erosion, welfare backlash and incorporation?. *Acta Sociologica*, 97-111.
- Laclau, E., &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Verso.
- Lipset, S. M., & Rokkan, S. (Eds.).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Vol. 7)*. Free press.
- Lipset, S. M. (1964). The changing class structure and contemporary European politics. *Daedalus*, 271-303.
- MacAllister, I., Johnston, R. J., Pattie, C. J., Tunstall, H., Dorling, D. F., & Rossiter, D. J. (2001). Class dealignment and the neighbourhood effect: Miller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1), 41-59.
- Mandel, E. (1963). The dialectic of class and region in Belgium. *New Left Review*, (20).
- Manza, J., Hout, M., & Brooks, C. (1995). Class voting in capitalist democracies since World War II: dealignment, realignment, or trendless fluctu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1),

137-162.

- Mair, P. (1990).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Marcuse, H. (1968). *One-dimensional ma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Sphere Books.
- Marx, K., & Engels, F. (1967). *The Communist Manifesto*. 1848. Trans. Samuel Moore. London: Penguin.
- Marx, K. (2008). *The poverty of philosophy*. Cosimo, Inc..
- Miller, W. L. (1978). Social class and party choice in England: a new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03), 257-284.
- Nieuwebeerta, P. (1996).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postwar societies: Class voting in twenty countries, 1945-1990. *Acta Sociologica*, 39(4), 345-383.
- Nieuwebeerta, P., & Ultee, W. (1999). Class voting in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1945-1990: Systematizing and testing explana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1), 123-160.
- Offe, C. (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817-868.
- Pakulski, J., & Waters, M. (1996). *The death of class*. Sage.
- Parkin, F. (1967). Working-class conservatives: a theory of political devia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8, 278-290.
- Przeworski, A. (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 & Soares, G. A. (1971). Theories in search of a curve: A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left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01), 51-68.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 443-478.
- Savage, M. (1993). Urban history and social class: two paradigms. *Urban History*, 20(01), 61-77.
- Shamir, M. (1984). Are Western Party Systems “Frozen” ? A Comparative Dynamic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7(1), 35-79.
- Soja, E. W. (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Verso.
- Stephens, J. D. (1981). The changing Swedish electorate: Class voting, contextual effects, and voter volatil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4(2), 163-204.
- Thrift, N., & Williams, P. (Eds.). (2014). *Class and space (RLE social theory): The making of urban society*. Routledge.
- Thompson, E. P., (1968).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rmondsworth.
- Urry, J. (1981). Localities, regions and social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5(4), 455-473.
- Veenstra, G. (2005). Location, location, location: contextual and compositional health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British Columbia,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60(9), 2059-2071.
- Wright, E. (1985). *Classes*. London New York: Verso
- \_\_\_\_\_. (1997). *Class counts: Comparative studies in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5). *Understanding Class*. London New York: Verso

## 부 록

### <부록 1> 모형1, 모형2

LV-1	모형1		모형2	
	Coef	S.E	Coef	S.E
세대				
30대			-0.38	0.44
40대			-0.60	0.44
50대			0.11	0.48
60대 이상			0.50	0.48
성별(여성)			0.41	0.27
거주지 도시화 수준			0.13	0.15
종교				
불교			-0.13	0.34
개신교			-0.35	0.34
천주교			-0.25	0.49
이념성향				
매우 진보적			-0.28	0.58
다수 진보적			-0.54	0.34
다소 보수적			0.58	0.32
매우 진보적			0.52	0.60
주관적 계층의식			0.15	0.08
경제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35	0.45
다소 좋아질 것이다			0.81	0.35
다소 나빠질 것이다			0.24	0.52
훨씬 나빠질 것이다			0.10	1.82
정치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31	0.52
다소 좋아질 것이다			-0.05	0.28
다소 나빠질 것이다			-0.40	0.54
훨씬 나빠질 것이다			1.40	1.01
정당지지				
새누리당			2.73	0.34
민주당			-2.11	0.41
기타정당			-1.24	0.43
17대 대선 투표선택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1.21	0.33
한나라당 이회창			0.13	0.46

<부록 1 계속>

LV-2	모형1		모형2	
	Coef	S.E	Coef	S.E
거주지역				
인천/경기도			-0.05	0.51
부산/울산/경남			0.05	0.57
대구/경북			1.51 *	0.64
광주/전라			-0.59	0.74
대전/충청			-0.99	0.63
강원/제주			-1.95 *	0.85
상수	-0.57 ***	0.13	-2.89 *	1.25
무선효과	0.98	0.13	0.93	0.22
ICC	0.23	0.05	0.21	0.08
LR Test	69.34 ***		10.72 ***	
N	976		881	
p<0.1 : + p<0.05 : * p<0.01 : ** p<0.001 : ***				



<부록 2> 모형3, 모형4

LV-1	모형3		모형4	
	Coef	S.E	Coef	S.E
세대				
30대	-0.14	0.48	-0.17	0.48
40대	-0.24	0.49	-0.26	0.49
50대	0.47	0.53	0.44	0.53
60대 이상	0.87	0.54	0.84	0.54
성별(여성)	0.36	0.29	0.38	0.29
거주지 도시화 수준	0.11	0.15	0.15	0.16
종교				
불교	0.00	0.36	-0.01	0.36
개신교	-0.40	0.37	-0.39	0.37
천주교	-0.39	0.52	-0.32	0.52
이념성향				
매우 진보적	-0.19	0.62	-0.18	0.62
다수 진보적	-0.44	0.37	-0.41	0.37
다소 보수적	0.67	0.35	0.68 +	0.35
매우 진보적	0.73	0.65	0.70	0.65
주관적 계층의식	0.16 +	0.08	0.16 +	0.08
경제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39	0.49	0.40	0.49
다소 좋아질 것이다	0.66	0.37	0.67 +	0.37
다소 나빠질 것이다	0.11	0.55	0.04	0.55
훨씬 나빠질 것이다	0.33	1.72	0.23	1.73
정치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19	0.58	0.13	0.58
다소 좋아질 것이다	-0.10	0.31	-0.04	0.31
다소 나빠질 것이다	-0.70	0.58	-0.68	0.58
훨씬 나빠질 것이다	1.33	1.15	1.37	1.14
정당지지				
새누리당	2.84 ***	0.42	2.79 ***	0.41
민주당	-2.30 ***	0.46	-2.30 ***	0.45
기타정당	-1.34 **	0.45	-1.42 **	0.45
17대 대선 투표선택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1.29	0.36	1.26 ***	0.36
한나라당 이회창	0.05 ***	0.47	0.04	0.47
계급				
자본계급	-1.67 *	0.74	-1.50 *	0.73
구중단계급	-1.07 **	0.41	-1.07 **	0.40
신중단계급	-0.57	0.39	-0.52	0.39

LV-2	모형3		모형4	
	Coef	S.E	Coef	S.E
거주지역				
인천/경기도	-0.02	0.47	-0.46	0.78
부산/울산/경남	-0.27	0.54	-0.86	1.02
대구/경북	1.28 *	0.59	0.61	1.16
광주/전라	-0.59	0.70	-1.17	1.24
대전/충청	-0.98 +	0.59	-1.77	1.15
강원/제주	-1.84 *	0.81	-2.52 +	1.36
지역사회 경제력 수준			0.01	
빈곤율			-0.02	0.02
아파트 평균가격			-0.19	0.19
지역사회별 불평등			0.37	3.18
아파트 평균가격 변화			0.03	0.06
지역사회별 불평등			2.42	2.95
상수	-2.42 +	1.32	-1.53	1.74
무선효과	1.03	0.33	0.95	0.35
LR Test	5.11 *		3.56 *	
N	840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부록 3> 모형5, 모형6

LV-1	모형5		모형6	
	Coef	S.E	Coef	S.E
세대				
30대	-0.21	0.47	-0.19	0.46
40대	-0.41	0.48	-0.41	0.48
50대	0.45	0.52	0.39	0.51
60대 이상	0.85	0.53	0.86	0.52
성별(여성)	0.43	0.29	0.45	0.29
거주지 도시화 수준	0.17	0.16	0.20	0.16
종교				
불교	-0.01	0.35	-0.03	0.35
개신교	-0.41	0.36	-0.36	0.36
천주교	-0.23	0.52	-0.16	0.52
이념성향				
매우 진보적	-0.13	0.61	-0.11	0.62
다수 진보적	-0.44	0.36	-0.47	0.36
다소 보수적	0.66 *	0.34	0.62 *	0.34
매우 진보적	0.71	0.65	0.73	0.64
주관적 계층의식	0.16 +	0.08	0.18 *	0.08
경제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28	0.48	0.28	0.47
다소 좋아질 것이다	0.69 +	0.36	0.68 +	0.36
다소 나빠질 것이다	0.14	0.55	0.10	0.55
훨씬 나빠질 것이다	-0.21	2.00	-0.53	2.14
정치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20	0.58	0.20	0.57
다소 좋아질 것이다	-0.05	0.30	-0.07	0.30
다소 나빠질 것이다	-0.47	0.56	-0.53	0.56
훨씬 나빠질 것이다	1.21	1.07	1.48	1.07
정당지지				
새누리당	2.84 ***	0.37	2.83 ***	0.38
민주당	-2.24 ***	0.44	-2.11 ***	0.43
기타정당	-1.26 **	0.44	-1.29 **	0.44
17대 대선 투표선택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1.27 ***	0.35	1.24 ***	0.35
한나라당 이회창	0.06	0.47	-0.05	0.46
계급				
자본계급	-0.67	1.55	-3.68 **	1.19
구중간계급	0.66	0.88	-2.43 ***	0.69
신중간계급	0.19	0.80	-1.33 *	0.67

LV-2	모형5		모형6	
	Coef	S.E	Coef	S.E
거주지역				
인천/경기도	0.04	0.68	-0.66	0.79
부산/울산/경남	0.00	0.78	-1.21	0.96
대구/경북	1.43	0.95	0.15	1.10
광주/전라	-0.35	1.07	-1.86	1.18
대전/충청	-0.73	0.91	-1.96 +	1.10
강원/제주	-1.29	1.18	-2.69 *	1.28
인구밀도	0.00	0.04	0.00	0.04
지역간불평등				
빈곤율	0.20	0.25		
아파트 평균가격			-0.06	0.03
자본계급 X 빈곤율	-0.44	0.54		
구중단계급 X 빈곤율	-0.61 *	0.30		
신중단계급 X 빈곤율	-0.28	0.28		
자본계급 X 아파트 평균가격			0.07 *	0.03
구중단계급 X 아파트 평균가격			0.05 *	0.02
신중단계급 X 아파트 평균가격			0.03	0.02
무선효과				
LR Test				
N	840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부록 4> 모형7, 모형8, 모형9

LV-1	모형7		모형8		모형9	
	Coef	S.E	Coef	S.E	Coef	S.E
세대						
30대	-0.11	0.48	-0.15	0.47	-0.19	0.47
40대	-0.23	0.49	-0.34	0.49	-0.34	0.48
50대	0.46	0.53	0.46	0.52	0.46	0.52
60대 이상	0.91 +	0.54	0.88 +	0.53	0.84	0.53
성별(여성)	0.34	0.29	0.44	0.29	0.37	0.29
거주지 도시화 수준	0.09	0.16	0.17	0.16	0.15	0.16
종교						
불교	0.00	0.36	0.04	0.35	-0.02	0.35
개신교	-0.42	0.37	-0.36	0.36	-0.41	0.36
천주교	-0.40	0.52	-0.24	0.53	-0.27	0.51
이념성향						
매우 진보적	-0.18	0.62	-0.20	0.62	-0.16	0.60
다수 진보적	-0.44	0.37	-0.46	0.36	-0.40	0.36
다소 보수적	0.64 +	0.35	0.63 +	0.34	0.66 *	0.33
매우 진보적	0.80	0.65	0.67	0.63	0.79	0.64
주관적 계층의식	0.16 +	0.08	0.17 *	0.08	0.16 +	0.08
경제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37	0.49	0.29	0.48	0.34	0.47
다소 좋아질 것이다	0.69 +	0.37	0.67 +	0.37	0.73	0.36
다소 나빠질 것이다	0.13	0.55	0.21	0.56	0.16	0.54
훨씬 나빠질 것이다	0.42	1.69	-0.54	2.17	-0.19	2.05
정치전망						
훨씬 좋아질 것이다	0.18	0.57	0.14	0.57	0.14	0.56
다소 좋아질 것이다	-0.11	0.31	-0.11	0.30	-0.07	0.29
다소 나빠질 것이다	-0.68	0.58	-0.64	0.57	-0.54	0.55
훨씬 나빠질 것이다	1.25	1.13	1.39	1.11	1.29	1.08
정당지지						
새누리당	2.88 ***	0.42	2.85 ***	0.37	2.82 ***	0.37
민주당	-2.26 ***	0.45	-2.19 ***	0.43	-2.21 ***	0.43
기타정당	-1.33 **	0.44	-1.29 **	0.45	-1.30 **	0.44
17대 대선 투표선택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0.04	0.47	0.02	0.46	0.04	0.46
한나라당 이회창	1.26 ***	0.36	1.33 ***	0.35	1.22 ***	0.34
계급						
자본계급	-6.92 **	2.62	-2.49 *	1.05	-1.58 *	0.74
구중간계급	-0.44	1.30	-2.00 **	0.57	-1.18 **	0.38
신중간계급	-0.69	1.29	-1.37 *	0.55	-0.56	0.39

LV-2	모형7		모형8		모형9	
거주지역						
인천/경기도	-0.05	0.60	0.09	0.79	0.06	0.66
부산/울산/경남	-0.21	0.66	-0.13	0.96	-0.26	0.74
대구/경북	1.29 +	0.78	1.32	1.11	1.06	0.91
광주/전라	-0.57	0.85	-0.53	1.14	-0.88	1.00
대전/충청	-0.92	0.79	-0.82	1.12	-1.08	0.93
강원/제주	-1.89 +	0.97	-1.54	1.31	-2.02 +	1.14
인구밀도	-0.01	0.03	0.00	0.04	0.00	0.04
지역사회별 불평등	-1.13	3.29				
지역사회 경제력 변화			-0.10	0.08		
지역사회 경제력 변화					3.57	3.68
자본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17.22 *	8.22				
구중단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2.18	4.27				
신중단계급 X						
지역사회별 불평등	0.41	4.26				
자본계급 X						
지역사회 경제력 변화			0.10	0.13		
구중단계급 X						
지역사회 경제력 변화			0.16 *	0.07		
신중단계급 X						
지역사회 경제력 변화			0.13 *	0.07		
자본계급 X						
지역사회 불평등 변화					5.61	8.49
구중단계급 X						
지역사회 불평등 변화					-5.03	4.30
신중단계급 X						
지역사회 불평등 변화					-0.16	4.23
상수	-2.40	1.47	-2.67 +	1.44	-2.79 *	1.19
무선희과	0.96	0.34	0.95	0.24	0.88	0.24
LR Test	3.82 *		9.33 ** (상수)		7.13 ** (상수)	
N	840		840		840	

p<0.1 : + p<0.05 : \* p<0.01 : \*\* p<0.001 : \*\*\*

<부록 5> 시군구별 집합자료 통계치

지역	시군구	빈곤율	아파트	지역사회별	지역사회	지역사회
			평균가격 (만 원/lm <sup>2</sup> )	불평등 (변량계수)	경제력 변화 (지난 3년)	불평등 변화 (지난 3년)
서울	강남구	1.62	1,145	0.40	188	0.38
서울	강동구	1.34	635	0.44	80	0.42
서울	강서구	3.22	488	0.23	135	1.28
서울	관악구	1.91	480	0.16	111	1.69
서울	구로구	1.44	453	0.24	135	1.18
서울	금천구	2.83	389	0.16	103	0.84
서울	노원구	3.54	470	0.17	185	2.42
서울	도봉구	1.33	425	0.18	162	2.16
서울	동대문구	2.34	462	0.17	128	0.88
서울	서대문구	1.61	458	0.21	122	0.74
서울	서초구	0.63	910	0.31	170	0.61
서울	송파구	0.92	869	0.37	70	0.57
서울	마포구	1.68	630	0.22	168	1.25
서울	은평구	2.02	423	0.21	130	0.83
서울	중랑구	2.39	430	0.13	143	2.67
경기	고양시	1.45	360	0.22	67	2.10
경기	광주시	1.52	275	0.19	35	2.17
경기	구리시	2.08	405	0.18	95	2.17
경기	군포시	1.44	355	0.16	61	3.34
경기	김포시	1.65	268	0.18	51	2.28
경기	부천시	1.61	360	0.21	102	1.91
경기	성남시	1.62	552	0.25	62	1.53
경기	수원시 권선구	1.48	265	0.20	41	1.07
경기	수원시 영통구	0.47	343	0.22	49	1.52
경기	수원시 장안구	1.25	301	0.20	52	1.84
경기	수원시 팔달구	2.07	315	0.24	62	1.25
경기	시흥시	1.50	266	0.16	93	2.69
경기	안산시 단원구	2.10	334	0.17	108	2.67
경기	안산시 상록구	2.07	301	0.20	94	1.30
경기	안성시	2.72	152	0.28	26	-2.13
경기	양주시	2.09	209	0.26	81	0.25
경기	오산시	1.46	223	0.18	48	1.57
경기	용인시 기흥구	0.71	349	0.23	11	1.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1.04	241	0.21	60	1.71
경기	의정부시	2.51	310	0.17	127	2.41
경기	파주시	1.83	227	0.33	13	0.14

<부록 5 계속>

지역	시군구	빈곤율	아파트	지역사회별	지역사회	지역사회
			평균가격 (만 원/1m <sup>2</sup> )	불평등 (변량계수)	경계력 변화 (지난 3년)	불평등 변화 (지난 3년)
경기	평택시	2.24	189	0.27	54	0.66
경기	화성시	0.95	214	0.35	23	-0.06
인천	계양구	1.54	281	0.14	103	2.99
인천	남구	2.33	253	0.20	84	0.87
인천	남동구	2.77	285	0.21	104	0.50
인천	부평구	2.94	305	0.19	102	1.74
인천	서구	1.70	274	0.17	83	2.34
강원	강릉시	3.55	114	0.39	15	-0.41
강원	속초시	5.17	103	0.30	4	-0.10
강원	원주시	3.04	132	0.39	19	-0.89
강원	춘천시	4.69	158	0.28	39	0.16
충남	공주시	4.09	146	0.41	34	-1.24
충남	아산시	2.49	135	0.40	20	-0.22
충남	예산군	3.94	116	0.40	33	-1.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2.36	163	0.31	15	-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1.56	177	0.37	23	-0.14
충남	태안군	3.24	101	0.43	10	-0.46
충남	홍성군	3.29	141	0.40	47	-0.61
대전	서구	2.20	191	0.32	12	0.55
대전	유성구	1.38	217	0.32	26	0.26
대전	중구	3.76	177	0.33	32	-0.31
충북	진천군	3.21	113	0.38	26	-1.17
충북	청원군	2.32	150	0.41	-23	-1.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3.04	136	0.25	17	0.25
충북	청주시 흥덕구	2.49	171	0.31	38	-0.19
경남	거제시	1.66	186	0.28	67	-0.02
경남	고성군	3.67	125	0.34	19	-0.24
경남	김해시	2.56	159	0.28	42	0.01
경남	양산시	2.55	133	0.42	38	-0.43
경남	창원시 의창구	2.02	204	0.46	-2	0.50
부산	동래구	2.18	217	0.32	43	-0.03
부산	진구	3.56	200	0.28	27	0.18
부산	북구	5.40	180	0.30	40	-0.34
부산	사상구	4.57	155	0.22	23	0.26
부산	사하구	4.19	157	0.31	31	0.07
부산	연제구	3.51	210	0.30	33	0.02



<부록 5 계속>

지역	시군구	빈곤율	아파트	지역사회별	지역사회	지역사회
			평균가격 (만 원/1m <sup>2</sup> )	불평등 (변량계수)	경제력 변화 (지난 3년)	불평등 변화 (지난 3년)
부산	영도구	5.53	160	0.28	32	0.37
부산	해운	3.22	235	0.39	65	-0.19
울산	남구	1.34	219	0.32	24	0.03
울산	동구	1.34	173	0.28	47	0.12
울산	북구	1.11	175	0.34	55	0.16
울산	중구	2.39	197	0.38	42	-0.30
경북	경산시	3.65	119	0.30	9	0.50
경북	경주시	3.49	139	0.39	30	-0.17
경북	구미시	2.18	130	0.39	25	-0.33
경북	포항시 남구	3.37	137	0.45	43	0.58
경북	포항시 북구	4.05	139	0.42	26	-0.81
대구	달서구	4.27	185	0.30	13	-1.35
대구	달성군	3.32	146	0.33	45	0.53
대구	동구	4.41	186	0.26	38	-1.05
대구	북구	3.39	158	0.27	5	-0.20
대구	수성구	3.60	243	0.40	46	-0.85
전남	광양시	2.45	86	0.32	19	0.99
전남	목포시	4.92	118	0.37	24	-0.09
전남	순천시	3.76	135	0.23	41	0.78
전남	여수시	4.20	114	0.30	30	0.40
전남	화순군	5.96	113	0.46	39	-1.44
광주	광산구	3.38	147	0.37	40	-2.22
광주	북구	4.83	131	0.36	25	-0.99
광주	서구	3.97	160	0.33	27	-1.51
전북	군산시	5.23	126	0.37	38	-0.38
전북	부안군	7.04	92	0.27	22	0.31
전북	익산시	5.23	120	0.33	18	0.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4.33	151	0.36	38	-0.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3.43	144	0.33	33	-0.22
제주	제주시	3.66	163	0.39	30	-0.63

# Abstract

The Effects of Community-level Economic Conditions on  
Class Voting:  
Focusing on the 5th Local Election in 2010

Sanghyo Ha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ey mechanism for explaining voting in Korea was regionalism. However, since the 2000s, as regional cleavage has declined, various factors have been presented to explain the voting behavior. Especially, as the economic polarization has deepened sinc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class cleavage become more common. Unlike Europe, the view that the clas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voting has been pervasive in Korea. It is therefore remarkable that the class was treated as a major research subject in electoral studie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voting in Korea have yet to reach consensus on whether the class has an important impact on voting, and, if so, on its direction and mechanism.

This article argues that previous studies were unilinear: the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through analysis of variance(ANOVA) 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class

structure at the individual level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voting as a dependent variable. However, they are cogent only on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of class are the same regardless of countries. Community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process of class formation in that it is where class formation actually takes place. Thus, if the economic conditions of communities affecting class formation are different, the effect of class on voting can also vary in communities, for the inequalities that may lead to class cleavage would deepen between communities and within communities.

The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class on voting choice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communiti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mmunities included in the analysis are economic level and inequality level by community, and their changes over time. For this purpose, the 5th local election in 2010, when the class agenda as free school meals policy and universal welfare emerged for the first time, was analyzed. This paper used individual-level data from 2010 Korea General Social Survey(KGSS) and aggregate-level data such as poverty rate and real estate price by city or gun or gu. In addition, to analyze the multi-level data with different units of analysis, logistic multilevel model was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class voting depends on the economic level of the community. It is found that as the economic level of the communit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voting for conservative party decreases among the working class over other classes. Inequalities within the community als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lass voting. The greater the inequality in the community, the more the bourgeois class supports conservative parties than any other class. Under the changes in the level of economic power and inequality over

time, the working class in the region with increasing level of economic power shows lower rate of support for conservative parties than the Petite Bourgeoisie and new middle class, while the change in inequality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In short, in the regions where the level of economic power was low or declining, class betrayal voting among the working class appeared. And in regions with high level of economic inequality, the Bourgeoisie' s class voting appeared.

Keywords: Class, Class voting, Community, Multilevel Model, Inequality, Working Class, the 5th Local Election

Student Number: 2015-20200